

2018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 관련 연계
제주어 세미나 지원 사업

제주어 표기법 토론회

- **일시** / 2018년 6월 16일 15:00~18:00
- **장소** / 한라수목원 자연생태학습체험관 2층 시청각실

목차

■ 행사 안내	5
■ 개회사	6
· 양전형 제주어보전회 이사장	
■ 인사말	7
·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 주제 발표	
[제1주제]	
· ‘제주어 표기법’에 대한 단상	9
/ 강영봉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 이사장)	
[제2주제]	
· ‘제주어표기법’을 왜 준수해야 하는가	43
/ 양전형(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 이사장)	

행사 안내

□ 제주어 표기법 토론회/6월 16일(토) 15:00~19:30

시간	내용
제1부 개회식	
15:00~15:10	등록
15:10~15:30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김정민(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 상임이사) ◦ 개회사: 양전형(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 이사장) ◦ 인사말: 박찬식(제주학연구센터장)
제2부 제주어 표기법 토론회	
15:50~18:00 (15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정예실(제주한라대 교수) • 주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주제: ‘제주어 표기법’ 에 대한 단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강영봉(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 이사장) 제2주제: ‘제주어표기법’ 을 왜 준수해야 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양전형(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 이사장) •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덕찬(노형중학교 교장) ◦ 문혜숙(제주동광초등학교 교사) ◦ 강원희(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 기관지 ‘덩드렁마깨’ 편집위원장) ◦ 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 종합 토론
18:10~1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찬(수목원 뷔페)

개회사



양 전 형
(사) 제주어보전회 이사장

“〈통일된 제주어표기법〉 위한 첫 걸음”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가 어느덧 중심에 들어 더운 여름철이 된 이때, 이렇게 ‘제주어표기법’에 대한 토론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이 계절처럼 열기 있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오며, 오늘의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박찬식 센터장님과 김순자 전문연구위원님,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 강영봉 이사장님, 그리고 저희 제주어보전회 상임이사님과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우리 제주의 보물인 제주어를 살리고 영구히 보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통일된 제주어표기법〉을 만들고자 하는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주방언연구회의 표기법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정 고시한 표기법이 상호간 상이한 부분이 있고, 사용자들에 따라서 표기 방식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우리의 제주어는, 지금시대에 어느 누구도 감히 창조해 낼 수 없는, 이 제주섬의 사람을 포함한 생물 무생물 등 모든 것의 정체성을 내포하면서 참으로 신기하고 특별한 언어의 맛을 지닌 말입니다. 이 언어를 사라지게 내버려 둔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 직무유기의 과오 인생을 남기는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된 내용들이 바로 표기법 개정으로 이어지겠습니까마는, 오늘을 시발점으로 하여 의견들을 종합하고 제주도에 건의하고 다음 재차 삼차 토론회의 장을 마련하게 한 후, 제주어 학자님들과 전문가들의 논의와 검토·합의를 거쳐 개정을 확정하고 고시하여 한글맞춤법처럼 제주어 사용자들이 통일된 표기를 하면서 우리의 제주어가 영구히 보전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6. 16.

인사말



박 찬 식
제주학연구센터장

“제주어 보전과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안녕하십니까?

신록이 우거진 계절에, 공기 좋고 분위기 좋은 한라수목원 자연생태 학습체험관에서 <제주어 표기법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 것을 뜻깊

게 생각합니다.

저희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지난 2014년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뢰로 ‘제주어 표기법(제주도 고시 제2014-115호)’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어 표기법’은 이전에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의 표기의 근간이 된 제주방언연구회의 ‘제주어 표기법’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사용자들 간에 혼란을 빚어온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저희 센터에서는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의 제안으로 <제주어 표기법 토론회>를 열고 제주어 표기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의 토론회가 각각의 표기법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에 따른 효과적인 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 양전형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 강영봉 이사장님, 그리고 토론자 선생님들께도 고마운 인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토론회가 제주 사람들의 정신이 배어 있는 제주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18. 6. 16.

[제1주제]

‘제주어 표기법’에 대한 단상

강영봉

사단법인 제주어연구소 이사장

제1주제

‘제주어 표기법’에 대한 단상

1. 머리말

방언학의 출발은 소장문법학자들이 ‘음운법칙의 무예외성’을 방언 자료에서 확인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 결과는 예상과는 달리 음운법칙에는 예외가 너무 많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방언 연구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 언어지리학 또는 전통방언학이라는 독특한 영역을 개척하게 되었다. 현장 조사 결과가 예외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방언이 지니는 성격 가운데 하나인 다양성과 관련이 깊기도 하다.

언어지리학 혹은 전통방언학은 지리적 차이로 인해 변이형이 생긴다는 것이다. 방언 조사를 위해서 시골 마을을 조사 지점으로 택하고, 제보자도 나이, 토박이, 교육 정도, 타향살이 여부, 치아 상태, 청력, 시력 등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조사되는 변이형도 가급적 고품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1950년대 중반부터 출발하는 사회방언학은 사회적 요인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변이형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현지 조사도 사회조사 방법론을 원용하고, 사회적 요인 즉 사회계층, 성별, 나이, 종교 등 여러 사회적 변인을 고려하여 통계 처리한다.

방언 연구는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한다. 어떻게 보면 현지조사는 방언 연구에 있어서 출발인 셈이다.

조사 목적에 따라 질문지를 작성하고, 조사 지점을 선정한다. 조사 지점은 가급적 그 지역의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 배경, 그리고 좋은 제보자를 구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방언 조사가 전통방언학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이기 때문이다.

제보자는 80대 이상으로 제보자를 정하는데, 토박이, 외지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 신체적 조건, 교육의 정도 등을 고려해서 선정한다. 이른바 판정추출법인 셈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작업이 1980년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전국 방

언 조사이고, 2000년대 초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이다. 제주도에 한정한다면 최근에 이루어진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전국 방언 조사는 《한국방언조사질문지》(어휘, 문법, 음운, 그림책으로 구성)에 따라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조사를 하고, 《한국방언자료집》(1~9)과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언어지도》를 출간하였다.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이루어진 사업으로, 《지역어 조사 질문지》(구술 발화, 어휘, 음운, 문법)에 따라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조사가 이루어졌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방언 조사와 20년이라는 시간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20년 사이의 변화를 조사할 수 있었고, 질문지에 따라 제보자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구술 발화’도 함께 조사했다. 해마다 지역어 조사 보고서가 나왔고, 권역별로 ‘구술 발화’만 따로 책으로 발간한 경우도 있다(지역에 따라 3권~6권).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 공동으로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이 진행되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반 동안 읍면별 2~3지점을 조사 지점으로 36권의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를 출간하였다. 이 사업의 《제주어 구술 채록 질문지》는 ‘구술’과 ‘어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 보고서》와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는 제보자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야기하는 ‘구술’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 보고서들은 실제 언어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자료들이다.

2. 제주어 표기법의 이력

<제주어 표기법> 마련은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 《제주설화집성》을 발간하기 위하여 제주도 설화를 조사하고, 조사한 내용을 제주어로 전사할 때 문제가 생겼다. 그 이유는 조사·전사 작업에 참여한 인원이 많았고(조사 위원: 김영돈, 현용준, 현길언/조사 보조원: 고팡민, 김지홍, 윤치부, 변치부, 고창성 등), 참여자 전공이 다른 만큼 표기 방법이 또한 달랐기 때문이다. 《제주설화집성》의 ‘발간 경위’에 따르면 “자료의 표기 방법 또한 술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아직껏 <제주어 표기법>이 마련된 바 없었기 때문이다. 1984년 내내 조사위원들은 거듭거듭 바람직한 표기법을 논의했고, 방언 연구에 한평생 전공한 현평효 총장님의 자문을 얻어 대체적인 틀만을 어렵게 합의했다. 합의된 바에 따라서 제각기 자료를 정리해 나갔으나 표기의 세부에 들어가서는 술한 과제가 속출했으며, 철저히 표기의 일률을 기

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4항의 <제주어 표기법 시안>을 마련하고, 책 본문 앞에 수록하였다.

1991년 2월 23일 ‘제주방언연구회’가 결성되고(회장: 현평효, 부회장: 김홍식·강정희), 분기별 연구발표회를 갖는 한편, 그 해 8월 현평효 주도로 <한글 맞춤법>을 참고하며, 《제주설화집성》의 ‘제주어 표기법 시안’을 수정, 보강하여, 4장 26항의 <제주어 표기법(안)>이 마련되었다. 1회의 토론을 거친 <제주어 표기법>은 1995년 《제주어사전》 부록으로 실어 발표하였다. 이 <제주어 표기법>에 따라 《제주어사전》과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이 만들어졌다.

2007년에는 이 <제주어 표기법>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검토하는 작업도 있었다. 11월 2일 영주어문학회와 제주대학교 국어상담소가 주관한 학술 행사가 그것으로, 주제는 ‘제주어, 어떻게 표기할까’였다. <제주어 표기법에 대하여>(강영봉 제주대학교 교수), <방언 표기법의 이상과 현실: 제주방언을 중심으로>(정승철 서울대학교 교수), <형태에 관한 제주어 표기>(강정희 한남대학교 교수)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한편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는 <제1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에 따라 <제주어 표기법>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2년 12월 26일 제주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제주어 표기법, 어떻게 해야 하나’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제주어 표기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효과>(송상조), <제주어 표기법 제정의 절차>(고재환), <제주어 표기법 마련과 관련한 몇 문제>(강영봉) 등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는 2013년 3월 제주어 표기법 제정을 위한 연구진을 구성하고 <제주어 표기법 표준안 제정> 사업을 추진하였다. 연구진으로 고재환(전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교수), 송상조(제주어보전육성위원), 김지홍(경상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고동호(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오창명(언어와 문자 연구소장), 문순덕(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장), 오승훈(제주발전연구원 전문연구원)이 참여하였다. 연구진 회의를 개최하며 <제주어 표기법 표준안>을 마련하고, 2013년 10월 26일 국학계 표기법 관련 전문가 3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회의를 열고,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표기법의 체재와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다. 이 토대로 2013년 12월 13일 도민 설명회를 열어 도민의 의견을 들었다. 두 번의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4장 20항 부칙’으로 구성된 <제주어 표기법>을 제정하고, 2014년 7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4-115호로 공표하였다.

3. 제주어 표기법 검토

여기서 <표기법 1>은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의 부록으로 실린, 제주방언연구회가 1991년에 마련한 <제주어 표기법>을, <표기법 2>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014년 7월 18일 ‘고시 제2014-115호’로 고시한 <제주어 표기법>을 말한다. 또 <표준안>은 발표 원고 뒤에 부록으로 제시된, 2013년 12월 13일(금)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도민 설명회 자료인 <제주어 표기법 표준안>을 말한다. <표준안>은 <표기법 2>의 시안이다.

(1) 표기법의 대상 또는 범위

표기법에서 그 대상과 범위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무엇을 표기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어느 범위까지 확대해서 표기할 것인가에 따라 도출되는 결론이 다르기 때문이다.

<표기법 1>에서는 전통방언학, 곧 지역 방언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이 필요 없다. 또 전통방언학이 추구하는 고행에 초점이 놓여 표기하기 때문에 의고적(擬古的) 표기를 좇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표기법 2>에서는 그 범위를 제3항과 ‘부칙 1’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제3항 이 표기법에서는 통합성과 포괄성을 기준으로 삼아서 제주어를 적는다.

부칙 1. 지역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다른 제주어는 모두 인정하여 적는다. (13개 예시 제시)

《제주어 표기법 해설》(33면)에 따르면, 제3항의 ‘통합성’은 “사회적 변이체, 지역적 변이체 모두를 인정한다.”는 것이며, ‘포괄성’은 “특정한 어형만 옳다고 하지 말자”는 뜻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통합성이 ‘사회적 변이체’와 ‘지역적 변이체’ 모두를 인정한다는 것이라고 한다면 ‘부칙 1’과 그 내용이 중복된다. 중복되는 내용을 왜 포함하고 있을까 하는 점이 <표기법 2>가 추구하는 성격임을 짐작할 수 있다.

원래 <표준안>에 따르면 제3항은 “제주어가 지역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다르면 그 말들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이었다. 국어학 또는 방언학 전공자와 비전공자로 구성된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다는 것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현지 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고 하자.

- 밖에서 집안으로 들어가려면 무엇을 열어야 합니까?

= (80대 제보자): 마릿문, 상방문, 대문

= (20대 제보자): 현관, 현관문

- 그 문을 열고 바로 들어서는 곳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80대 제보자): 마리, 상방

=(20대 제보자): 거실

이 조사 결과에서 ‘마릿문·상방문·대문, 마리·상방’은 지역 방언이고, ‘현관·현관문, 거실’은 사회 방언이다.

<표기법 2>의 제3항과 부칙 1’을 적용하면, ‘마릿문, 상방문, 대문, 현관, 현관문’이 다 같다는 것이다. 또 ‘마리, 상방, 거실’이 같다는 말이다. 과연 그런가. 가옥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교의 기준이 다르고, 비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방언의 변이형과 사회 방언의 변이형을 하나의 부류로 묶어서 같다고 할 수 없다. 지역 방언 변이형으로 묶인 ‘마릿문, 상방문, 대문’은 하나의 부류로 묶이기 때문에 어느 게 맞다, 맞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이는 지역 방언의 특성인 ‘다양성’으로 이해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마리, 상방, 거실’을 한 부류로 묶을 수 없지만, ‘마리, 상방’은 하나의 부류로 묶인다.

<표기법 2>에서 제3항과 부칙 1의 내용이 중복되고 있음에도 표기법에 넣고 있는 것은 <표기법 2>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뺄 수가 없다. 결국 표기법의 적용 범위를 사회 방언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문제를 낳는 결과가 된다(이에 대한 문제점은 나중에 밝혀질 것이다.).

(2) 체언과 조사

체언과 조사는 <표기법 1>과 <표기법 2>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표기법 1>에서는 제13항에 제시되어 있으며, 다음 어휘들이 예시되어 조사

와의 연결 관계를 보이고 있다.

독[鷄] 흑[土] 신[鞋] 손[手] ㄱ[粉] ㄷ[月] 질[道路] ㄹ[馬] ㅁ[材料] 남[木] ㅂ[음/ㅁ슴[心] ㅅ[八] ㅈ[口] ㅊ[小豆] ㅋ[顏] ㆁ[友] ㆁ[花] 고장[花] 낭[木] 삶[生活] ㄱ[價] 새백[晨] 박[外] 집안[家內] 절간[寺刹] 산[山] 봄[春] 밤[夜] 집[家] ㅂ[外] 마당[場] 바닷[海] 방[房] 밤중[夜中] 초승[初-] 낮[晝] 꽃[藪] 앞[前] ㅈ[저곶/저곶[側] ㅈ[末] 못[池] ㅈ[底] 바깥[外] ㅂ[田] ㅂ[太陽] 솟[鼎] 안[內] ㅈ[邊] 머리ㅂ

<표기법 2>에서는 제10항, 제15항이 체언과 조사에 관한 내용이다.

제10항은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여 소리가 바뀌지 않거나, 바뀌더라도 꼭 바뀔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체언과 조사의 본디 꼴을 적되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는다.” 하여 ‘독[鷄], 논[畓], ㄹ[馬], ㅈ[他], ㅅ[八], ㆁ[花], 고장[花], 자리[席]’ 등 8개 어휘가 제시되어 있다.

제15항은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여 꼭 바뀔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체언이나 조사의 소리가 바뀌는 것은 바뀌는 대로 적되,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는다.” 하여 ‘안[內], 질[路], 바깥[外]’이 예시되어 있다. 그리고 “다만, 다른 소리가 덧나기도 하고 덧나지 않기도 하는 것은 덧나지 않는 꼴로 적는다.” 하여 ‘내[川]에, 시[市]에, 질레에’가 제시되었고, 붙임으로 “서술격 조사 ‘이’ 앞에서 /ㅈ, ㅈ/ 등으로 나타나는 체언의 중성은 다른 조사 앞에서도 ‘ㅈ, ㅈ’ 등으로 적는다.” 하여 ‘낮, 앞’에 제시되었다.

두 표기법에서의 관심은 ‘박, ㅂ, 바깥’과 ‘꽃’이다. ‘박’ 등은 표기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리된다.

<표기법 1> 제13항: 박[外], ㅂ[外], 바깥[外]

<표준안> 제15항: ㅂ[外] 바깥, 바깥

<표기법 2> 제15항: 바깥[外]

<표준안>과 <표기법 2>를 견주어 볼 때 <표준안>에 제시되었던 ‘ㅂ[外]’과 ‘바깥’은 <표기법 2>에서는 제외되고 ‘바깥’만 제시되었다. ‘ㅂ’ 등 ‘外’의 의미를 지닌 어형을 어떻게 표기할 것인가 하는 점이 어렵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발표자는 이 어휘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박: 박거리

밭(팻): 밧거리/밭집, 밧잠지, 밧칠성: 안팻, 안팻거리, 안팻부귀,
안팻살림, 안팻잔치

밧긔: (육지의 뜻), 밧긔물질

밧겻: 밧겻/밧갓/밧겻, 밧겻일/밧갓일/밧겻일

‘박’은 ‘박거리’에서 나타난다. 제보자에 따라 [반꺼리]라 하지만 [박꺼리]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박거리’로 적을 수밖에 없다. ‘박’으로 적어야 하는 유일한 예이다.

‘밭’은 ‘밭거리/밭집, 밧잠지, 밧칠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밭’이다. ‘팻’은 ‘밧’의 이형태로, 합성어 ‘안팻’에서 확인된다. ‘안팻거리, 안팻부귀, 안팻살림, 안팻잔치’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밧긔’는 육지의 뜻으로 쓰이는 특수한 경우다. 이 ‘밧긔’는 ‘밧긔물질’ 정도에 나타나는데 예외로 인정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

‘밧겻’은 <표기법 1>에서는 ‘바겻’, <표기법 2>에서는 ‘바갓’으로 적고 있는 것으로 보면 표준어 ‘바깥’에 이끌린 결과로 보인다. ‘바깥’은 문헌 어휘 ‘밧겻(밧[外]+겻[傍])’을 고려한다면 ‘바겻, 바갓’보다는 ‘밧겻’으로 적는 게 좋을 듯하다. ‘밧겻일’도 마찬가지다.

이 ‘밧겻’과 관련하여 <표기법 2> 제20항 합성어 항목에, “2. 모음과 /|/ 사이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은 ‘ㅅ’을 앞 글자의 받침 글자로 적는다.” 하여, ‘췌입, 농숫일, 바갓일/바겻일/배겻일, 배겻잇, 츠렛일’ 등이 예시되어 있다. 이 가운데 ‘바갓일/바겻일/배겻일’은 ‘꺄+ㅅ+입, 농스+ㅅ+일, 배개+ㅅ+잇, 츠레+ㅅ+일’로 분석되는 어휘들과는 달리 ‘바갓+일/바겻+일/배겻+일’ 구성이기 때문에 ‘췌입’ 등과 함께 다를 일은 아니다. 또 ‘바갓일/바겻일/배겻일’은 문헌 어휘 ‘밧겻일’[이휘일(李徽逸)의 존재집(存齋集)]을 참고한다면 ‘밧갓일/밧겻일/밧겻일’로 적는 게 어떤가 한다. ‘밧갓일’로 쓰여 앞의 ‘밧갓’과도 보조를 맞출 수 있다.

‘꺄’를 보자. <표기법 1>에서는 ‘꺄[藪]’이 제시되어 있다. <표준안> 15항에는 “꺄[藪]: 꺄이, 꺄을, 꺄에, 꺄도, 꺄만”을 제시하여 모음 앞에서는 ‘꺄’, 자음 앞에서는 ‘꺄’으로 적고 있다. 고민의 흔적으로, <표기법 2>에서는 제외되었다.

‘藪’와 관련해서는 《남사록》과 《탐라지》 기록이 있다.

以藪爲花(《남사록》, 김상헌, 1601)

以藪爲高之(《탐라지》, 이원진, 1653)

《탐라지》의 ‘高之’는 음으로 읽으면 ‘고지’가 되어 문제가 없지만, 《남사록》의 ‘花’는 뜻으로 읽어야 하니 문제다. ‘花’의 뜻은 ‘곧, 곳, 꽃, 꽃’ 등으로 나타나고, 《훈민정음》이나 《용비어천가》 등에 ‘꽃’이 쓰인 것을 고려하여 ‘꽃’으로 읽어도 좋을 듯하다. 아주 특별한 경우이긴 하지만 <표준 발음법> 제16항 “한글 자모의 이름은 그 받침소리를 연음하되, ‘ㄷ, ㅈ, ㅊ, ㅋ, ㅌ, ㅍ, ㅎ’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하여 ‘지웃이[지으시], 지웃을[지으슬], 지웃에[지으세]’ 등에서 ‘ㅈ’을 ‘ㅅ’으로 읽기도 한다. <표기법 2>의 제2항 “2. 이미 굳어진 것은 그대로 쓴다.”는 조항에 따라 <표기법 2>에서는 제외된 게 아닌가 한다.

(3) 어간과 어미

‘어간’과 ‘어미’는 <표기법 1>과 <표기법 2> 사이에 확실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표기법 1>에서는 제14항에서 제21항까지 8개 항목에 걸쳐 언급한 반면, <표기법 2>에서는 제11항과 제16항 두 항목에서 언급되어 있다.

어간부터 보자. <표기법 1>의 제16항 “어간의 끝음절과 어미 ‘-ㅏ/-ㅑ’가 결합되면서 어간 끝음절 모음 ‘ㅡ’가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하여, ‘가끄다[削] 고프다[飢] 가쁘다[報] 거끄다[折] 마뜨다/마뜨다[如] 나끄다[鈞] 노뜨다[高] 다끄다[修] 더뜨다/더끄다[蓋] 둥그다[沈] 마뜨다[任] 무끄다[束] 바뜨다/바끄다[吐] 보끄다[炒] 부뜨다/부뜨다[附] 서끄다/서뜨다[混] 시끄다[載] 실뜨다[厭] 싱그다[植] 아프다[痛] 야뜨다/야뜨다[淺] 어뜨다[覆] 여끄다/으끄다[編] 을뜨다[詠] 주끄다[咲] 지뜨다[深] 푸끄다[扇] 할뜨다[舐]’ 등과 함께 활용형이 제시되었다.

<표기법 2>의 제11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1항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여 소리가 바뀌지 않거나, 소리가 바뀌더라도 꼭 바뀔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는다.

들과 ‘-으곡’이 연결되고, 나머지 받침에서는 모두 ‘으’가 탈락된다고 말할 수 있을 듯하다.”는 설명은 너무 멀리 돌아갔다는 생각이다.

<표 1>로 돌아가 보자. ‘뉘다’와 함께 예시된 ‘막다’인 경우는 ‘막곡’으로 ‘으’가 탈락되어 있다. ‘뉘다’는 ‘뉘으곡’으로 활용하고, ‘막다’는 ‘막곡’으로 활용한다면 그 차이를 먼저 설명해야 한다. 사실 받침 ‘ㄱ’이나 ‘ㄱ’은 같은 연구 개음으로 함께 설명되어야 한다. 받침에 따라 ‘ㄱ’ 받침이니까 ‘으’가 탈락하지 않고, ‘ㄱ’ 받침이니까 ‘으’가 탈락한다고 자음 각각을 구분하여 설명하지 않는다. 자음으로 끝났느냐, 모음으로 끝났느냐, 모음도 양성모음이나 음성모음이냐 하는 음성적 환경을 고려할 뿐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미 ‘-으곡’은 어떠한 음성적 환경에서도 항상 ‘으’가 탈락하여 ‘-곡’으로 실현된다.

자음: 먹[食]-곡, 업[狽]-곡, 신[履]-곡, 심[執]-곡, 좇[索]-곡
모음: 가[去]-곡, 오[來]-곡, 자[寢]-곡, 주[授]-곡, 기[匍]-곡

그렇다고 한다면 ‘뉘으곡’의 ‘으’는 어미 요소가 아니라 어간 요소임이 분명해진다.

㉠의 ‘뉘나’를 생각해 보자. 어미 ‘-나’는 마침표를 동반하여 ‘단정’의 뜻을 지닌다. <표 1>에 따르면 유독 ‘살다’만 빈자리로 남아 있다. 파생어 ‘사람’과 ‘삶’이 ‘살다’에서 나온 것을 생각한다면 ‘단정하는 자리’가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표 1>로 돌아가 찬찬하게 예시된 어휘들을 읽어보자. 공교롭게도 모두 자음으로 끝난 어휘들이다. 모음으로 끝나는 어휘들은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한다. ‘자다[眠], 추다[舞], 기다[匍]’를 활용해 보자. 각각 어간에 어미 ‘-나’를 연결하면 ‘자나, 추나, 기나’가 된다. 이때는 필연적으로 물음표를 동반하게 되어 의문의 뜻을 나타낸다. 의문의 뜻이라면 우리가 논의하는 단정의 ‘-나’와는 다른 것이다. 모음 다음에 연결되어 단정을 나타내는 어미를 찾아야 하는데, 그 어미가 바로 모음이나 ‘ㄱ’ 뒤에 연결되는 ‘-ㄴ다’이다. 이 ‘-ㄴ다’가 ‘살다’의 어간 ‘살-’에 연결하면 어간 말음 ‘ㄱ’은 탈락하여 ‘산다’(돈싯텐 텅텅거리멍 산다.)가 되고, 이 ‘산다’가 빈자리를 채워 <표 1>은 온전한 활용표가 완성된다. 또 ‘자다, 추다, 기다’도 아래와 같이 ‘잔다, 춘다, 긴다’로 실현되어 단정을 나타낸다.

즘도 잘 잔다.
 춤도 잘 춘다.
 잘잘 잘 긴다.

단정의 어미 ‘-ㄴ다’를 ‘나끄다’에 연결하면 ‘나끈다’가 되고, 이 ‘나끈다’는 아래 예문에서 보듯 예외의 ‘냠나’와 수의적으로 교체되어 사용된다.

그 사름 궤기도 잘 나끈다.
 그 사름 궤기도 잘 냠나.

그러면 왜 예외의 ‘냠나’가 실현되는 것일까?

이는 어미 성격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 단정의 어미 ‘-나’는 자음 다음에 연결되는 어미다. ‘나끄다’ 어간에 예외적으로 자음 다음에 붙는 어미 ‘-나’를 결합시키려고 하면 어간 말음 ‘으’를 탈락시키고 남은 ‘ㄱ’을 첫음절의 받침으로 올려 적으면 어미 ‘-나’가 연결될 환경이 되고, 그래서 ‘냠나’로 실현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 ㉔의 ‘냠는’을 보자. ‘냠는’에서 분석되는 어미 ‘-는’은 어떤 음성적 환경이든 항상 ‘-는’으로 실현되는 어미다. <표기법 2>처럼 ‘냠-+-는’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제주어 표기법 해설》(88면)에 따르면, ‘냠는’이 결코 “[나끄는]으로 소리 나지도 앓고”라 하여 ‘나끄는’이라는 형태는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고 단언하고 있다.

앞에서 방언 연구의 출발은 현장 조사에 있음을 언급하였다. 현장 조사 결과물인 <조사 보고서>를 통하여 ‘냠는’이 실현되는가, ‘나끄는’이 실현되는가를 확인해 보자. 확인에 이용할 보고서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조사되는 ‘구술 발화’가 포함된 <지역어 조사 보고서>와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이다. 이 두 보고서는 전통방언학의 입장, 곧 지역 방언의 조사 방법에 따라 80세 이상 토박이를 제보자로 하여 조사한 보고서들이다. 전자인 <지역어 조사 보고서>는 국립국어원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전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조사한 결과 보고서이며, 후자인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2년 반 동안에 조사가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 보고서>는 음성형으로 전사되어 있으며, 형태음소로 전사한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는 36권으로 구성되어 한 지역을 아주 촘촘하게 조사한 보고서이다. <지역어 조사 보고서>는 한정면 조수리(2005), 서귀포시 호근동(2006), 표선면 가시리

(2007), 구좌읍 동북리(2008), 서귀포시 색달동(2009), 대정읍 가파리(2011) 등 6개 보고서가 확인 대상이며(질문지, 어휘·음운·문법 보고서, 조사만 하고 전사하지 않은 보고서 제외함),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는 36권 전부 확인 대상이다.

우선 <표 1> 활용표에서 실현된다는 ‘냠는[낭는]’을 보자. ‘냠는’은 42권의 보고서 가운데 《2016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28, 성산읍 온평리)에 조사된 ‘냠는’이 유일한 예이다.

다음 ‘나끄는’을 확인해 보자. <지역어 조사 보고서>에서는 《2011년도 제주 지역어 조사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에 7회 나타난다. 섬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또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에서 ‘나끄는’이 나타나는 횟수는 <표 2>와 같이 14개 보고서에서 59회나 된다. 조사자의 12회를 제외하더라도 제보자에 의해서 47회나 실현된다. 오로지 제보자에 한정했을 때도 7개의 보고서에서 26회나 되니, 1회의 ‘냠는’ 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다. 결국 ‘냠는’은 언어 현실을 배제하고 이론으로만 가능한 어형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표 2>: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 중 ‘나끄는’의 실현 횟수

구술 보고서	조사자	제보자
구좌읍 송당리 보고서	-	1
표선면 표선리 보고서	1	1
남원읍 남원리 보고서	1	-
제주시 외도동 보고서	4	4
조천읍 함덕리 보고서	-	4
성산읍 삼달1리 보고서	1	2
안덕면 대평리 보고서	-	1
조천면 신촌리 보고서	-	2
성산읍 온평리 보고서	3	8
남원읍 태흥리 보고서	1	3
서귀포시 토평리 보고서	-	1
한경면 신창리 보고서	1	2
한림읍 옹포리 보고서	-	1
애월읍 구엄리 보고서	-	17
계	12	47
총계	59	

만일 20대 대학생을 제보자로 하여 조사한다면 그 결과는 반대로 나타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곧 ‘나끄는’은 나타나지 않거나 조사 횟수가 적을 것이며, ‘냠는’은 절대적으로 우세하게 나타날 것이다. 문제의 경계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로, <표 1> 활용표의 ‘냠는’은 사회 방언을 반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㉞의 ‘냠안’을 보자. <한글 맞춤법> 제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는 규정이 있다. 그 가운데 어간 끝 ‘ㄷ, ㅁ’가 줄어드는 경우로, ‘푸다’를 비롯하여 ‘뜨다, 끄다, 크다, 담그다, 고프다, 따르다. 바쁘다’ 등 어휘가 예시되어 있다. 이들 어휘의 어간 다음에 어미 ‘-어’가 결합하면 ‘ㄷ, ㅁ’가 줄어들어, ‘피, 떠, 꺼, 커, 담가, 고폶, 따라, 바빠’가 된다. 마찬가지로 ‘나끄-+-안’은 어간의 ‘-’가 줄어들어 ‘나깐’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표 1> 활용표의 ‘냠안’은 ‘냠-+-안’으로 분석되는 것이며, <표기법 1>에서의 ‘나깐’은 ‘나끄-+-안’으로 분석되어 그 어간이 다름을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표 3>과 같다.

<표 3>: <표기법 1>과 <표기법 2>의 활용 비교표

구 분		-안	-민	-곡/-고	-나/-ㄴ다 /-는다	-는
<표기법 1>	나끄다	나끄안 >나깐	나끄민	나끄곡	나끄나 (냠나)	나끄는
<표기법 2>	냠다	냠안	냠민	냠곡	냠나	냠는
표준어	냠다	냠아서	냠으면	냠고	냠는다	냠는

<표기법 1>과 <표기법 2>의 차이는 어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표기법 1>에서는 지역 방언형인 ‘나끄-’를 어간으로 봄으로써 ‘-안, -민, -으곡, -나/-ㄴ다, -는’과의 연결 관계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다만 단정의 어미에서 ‘냠나’를 손톱뭉음으로 묶은 것은 예외로 출현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표기법 2>에서는 지역 방언의 ‘냠-으다’와 사회 방언형인 ‘냠-다’의 어간은 같은 ‘냠-’으로 보고 활용표를 보인 것이다(<표기법 2>의 제3항과 부칙 1의 내용을 적용한 결과임). 문제는 음영으로 표시된 두 부분이다. 지역 방언형인 ‘나끄곡’을 발음이 같은 ‘냠으곡’을 활용형으로 제시함으로써 어미 체계에 동요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미 ‘-으곡’은 어떠한 음성적 환

경이든지 ‘-곡’으로 실현되는 어미다. 또 <표기법 2>의 ‘냠으곡’은 <표기법 1>의 ‘나끄곡’과 발음이 같아 지역 방언과 겹치는 결과가 된 것이며, ‘냠는’은 20대 제보자에게서 확인되는 사회 방언 형태로 <표기법 2>에 반영되어 있다. 위에서 확인된 바처럼 80대 제보자들의 지역 방언형인 ‘나끄는’은 배제되었다. 결국 <표기법 2>는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을 같은 것으로 보고 활용형을 제시했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가 언어 현실과는 맞지 않는 활용표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결국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을 같은 것으로 해서 표기법에 반영할 일은 아님을 알려주는 것이다. 지역 방언 ‘나끄다’와 사회 방언 ‘냠다’는 같지 않다.

그러면 ‘냠으다’로 적어야 할까 ‘나끄다’로 적어야 할까 하는 문제가 남았다(이미 앞에서 ‘나끄다’임이 밝혀졌다.). <표기법 2>에서는 ‘냠으다’로 적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으다’를 어미로 설정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제주어 표기법 해설》(126면)에 따르면, “모음 어미는 ‘-아’ 계열을 제외하면 모두 ‘으’로 시작되므로, ‘으다’가 자연부류로 묶일 수 있다.”는 가정이다. 이 가정이 성립하려면 ‘으’로 시작되는 어미 ‘으난, 으민, 으명’의 ‘으’와 ‘으다’의 ‘으’가 같은 것이라는 전제가 뒤따라야 한다. 또 하나는 무연성(無緣性)의 ‘끓으다[如], 덥으다[蓋], 밖으다[唾], 쉬으다[載/縫], 얕으다[淺] 등에서도 ‘으다’를 설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첫째, ‘으난, 으민, 으명’과 ‘으다’의 ‘으’가 탈락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탈락하는 요인은 다르다. 곧 전자의 탈락은 언어 내적 요인에 의한 것인데 반하여, ‘으다’의 ‘으’ 탈락은 “나이 든 사람들은 어미 ‘으다’를 쓰지만, 젊은 세대들에게는 표준어처럼 이 어미가 ‘-다’로 단일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제주어 표기법 해설》, 130면)라 하여, 탈락의 원인을 언어 외적인 요인에서 찾고 있다. 지역 방언 제보자가 쓰는 ‘으다’가 사회 방언을 구사하는 젊은이들에게 와서는 ‘-으다>-다’ 변화가 일어나 ‘으’가 탈락한다는 것이다. 지역 방언을 이야기하면서 사회 방언을 끌어들이는 설명이다.

둘째 이른바 ‘냠으다’류의 어휘들은 유연성(有緣性)과 무연성(無緣性)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유연성(有緣性)의 어휘

값으다-값다, 값으다-값다, 끝으다-끝다, 냠으다-냠다, 뉘으다-뉘다, 똥으다-똥다, 말으다-말다, 묶으다-묶다, 밭으다-밭다, 북으다-북다, 붙으다-붙다, 쉬으다-쉬다, 싶으다-싫다, 얹으다-얹다, 엮으다-엮다, 열으다-열다, 질으다-질다, 짚으다-짚다

②무연성(無緣性)의 어휘

끓으다[如], 덮으다[蓋], 밖으다[唾], 쉬으다[載/縫], 얕으다[淺]

①의 유연성 어휘들은 그 짝을 이루는 어휘들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②의 무연성의 어휘들은 그 짝이 없어 ‘ㄷ, ㅌ, ㅍ’을 첫음절의 받침으로 써야 할 이유가 없다. 마찬가지로 이 ‘ㄷ, ㅌ, ㅍ’을 다음 음절로 내려 적었다고 해서 잘못 되었다고 말한 근거 또한 없다.

결국 <표기법 2> 제11항의 활용표는 <표기법 2>의 제3항의 “통합성과 포괄성을 기준으로 삼아서 제주어를 적는다.”와, 부칙 1의 “지역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다른 제주어는 모두 인정하여 적는다.” 하여 표기 범위를 사회 방언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한 결과로 생긴 문제다.

‘어미’에 대해서 알아보자. ‘어미’에서 문제되는 것은 선어말어미이다.

<표기법 1>에서는 제19항, 제21항이 해당한다.

제19항 선어말어미 ‘-았/었-’에 해당되는 형태는 ‘앗/엇’으로 적는다

제21항 종결어미 ‘-저’와 ‘-주(쥐)’는 ‘-쩌’와 ‘-쭈(쨌)’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저’, ‘-주’로 적는다.

<표기법 2>에는 선어말어미에 대한 언급은 없다. <표준안> 제11항의 ‘붙임’에서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표기법 2>에서는 삭제되었다.

[붙임] 선어말어미 ‘-앗-/-엇-’이 모음 어미나 자음 어미와 결합할 때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가다[去]	갓어라	갓느냐	갓저	갓주
보다[見]	봏어라	봏느냐	봏저	봏주
사다[立]	삿어라	삿느냐	삿저	삿주
막다[防]	막앗어라	막느냐	막저	막주
답다[築]	다왓어라	답느냐	답저	답주
낳다[産]	낳어라	낳느냐	낳저	낳주

이 [붙임]만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어도 선어말어미는 ‘-앗-/-엇-’을 쓰고 있으니 ‘-았-/-었-’도 유추할 수 있다. 《제주어 표기법 해설》을 보기 전에는 어떤 선어말어미를 쓰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선어말어미는 학자 사이에 견해의 차이가 있다. 어떤 학자는 ‘-아시-/-어서- : -암시-/-엄시-’로 보는가 하면 어떤 학자는 ‘-앗-/-엇- : -앓-/-없-’으로 보고 있다. ‘밥 먹다’를 예로 들어 선어말어미를 표로 비교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4> 선어말어미 활용표

<표기법 1>		<표기법 2>	
-어시- -(어스)-	밥 먹어서? 밥 먹어서. 밥 먹었저.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저.	-엇-
	밥 먹어시냐? 밥 먹어수다.	밥 먹었이냐? 밥 먹었우다.	
-엄시- -(엄스)-	밥 먹엄서? 밥 먹엄서. 밥 먹엄저.	밥 먹없어? 밥 먹없어. 밥 먹없저.	-없-
	밥 먹엄시냐? 밥 먹엄수다.	밥 먹없이냐? 밥 먹없우다.	

<표기법 1>에서는 ‘-어스-’ 또는 ‘-엄스-’이 기본으로 하여 모음 어미가 연결되면 ‘스’를 내려 적고(밥 먹어스+-어>밥 먹어서. 밥 먹엄스+-어>밥 먹엄서.), 자음 어미가 연결되면 앞 음절의 받침을 올려 적으면(밥 먹어스+-저>밥 먹었저. 밥 먹엄스+-저) 된다. 문제는 선어말어미 ‘암스’ 다음에 자음 어미가 연결될 경우, <표기법 1> 제21항에 따라 예사소리로 적음으로써 ‘스’의 존재가 없어진다는 약점이다. 분명 된소리로 발음된다는 것은 ‘스’음이 있다는 사실인데 이를 표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발표자 개인적으로는 제21항을 고쳐서 “중결어미 ‘-저’와 ‘-주(취)’는 ‘-찌’와 ‘-쭈(쨌)’로 소리 나는 경우는 된소리로 적는다.”로 고치어 활용하고 있다.

<표기법 2>의 선어말어미는 정연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앓-/-없-’인 경우 현대국어에 없는 ‘ㅁ’ 겹받침을 쓴다는 것이 낯설게 느끼게 되고(밥 먹없어?, 밥 먹없우다.), 그 결과 제주어 표기법이 어렵다는 인상을 준다.

사실 선어말어미는 학자 사이에 대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문의 영역으로 두고, 일반인들이 평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표기법을 마련하는 게 좋을 듯하다. 그런 점에서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의 ‘방언 표기 원칙’ 가운데 아래 사항은 좋은 참고가 된다.

3. 표준어에 없는 겹받침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용례>에서는 음소적 표기를 한다.

예 낱이⇒낱기, 뚝에⇒돌케, 읊어⇒읍써, 앓어⇒앙겨, 뭍어⇒몽꺼, 삶아⇒삼따

(2) <표제어>에서는 용언과 체언을 구분하여 적는다.

①용언의 경우, 어미 ‘-다’가 결합할 때의 음소적 표기를 한다.

예 깊다⇒결따, 읊다⇒읍따, 앓다⇒앙따, 뭍다⇒몽따, 삶다⇒삼따, 놓다⇒농타

②체언의 경우, ‘ㅇ’은 단독형을 적고 나머지는 표제어에서 제외시킨다.

예 낱⇒낱기/낱구/낱그, 뚝⇒∅, 흙⇒∅

곧 (1)의 ‘읊어⇒읍써’ 예에 따라 ‘ㅛ’ 다음에 자음이 오면 ‘ㄱ’과 된소리로 분리하여 표기하고(없저⇒엄써), 모음이 오면 ‘ㅅ’을 내려 쓰면(없어⇒엄서) 될 일이다.

(4) 한자어

<표기법 1>에서는 한자어에 대한 항목은 따로 없는 반면, <표기법 2>에는 제4항(자모), 제8항(속음), 제12항(두음법칙), 제19항(한자 형태소) 등에서 다루고 있다. 제주어 교육이라는 입장에서 한자어인가 아닌가 구별해야 하는 부담이 증가한다는 문제와 한자어와 고유어의 통일이라는 문제가 있다. 특히 한자어인가 고유어인가 하는 구별은 한글세대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특히 제 4항(자모)에서는 “다만, ‘ㅇ’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의 초성 글자로도 쓰고, ‘ㄱ, ㄴ’는 한자 형태소를 적을 때만 쓴다.” 하여, 고유어에서는 ‘ㄴ’를 쓰지 않게 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제19항에 예시한 ‘의원, 합의, 희미, 회의’는 《표준 한국어 발음대사전》에 따르면 각각 [의원], [하비], [히미], [회의/훼이]로 [의] 또는 [이]로 발음되나 의고적 표기에 따라 ‘의’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고유어에서도 ‘ㄴ’는 표기되어야 한다. ‘의>이’ 변화가 있었다고 하지만 꼭 그렇게 변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딴>어디

거의>거의

여희다>여의다

히다>희다

딛>딛, 데

‘어딛>어디’로 변화한다. “어디래 감이라?”, “어드레 감이라?” 발화를 고려하면 의고적 표기인 ‘어딛’라고 적어서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거의>거의’ 변화는 소중한 예이다. [거의/거이]라고 발음되지만 ‘거의’라고 표기하고 있다. ‘여희다’도 ‘여의다’로 변하지만 ‘여의다’는 물론 ‘여희다’라는 의고적 표기도 가능하고, ‘히다>희다’ 변화 과정을 거치지만 ‘희다’로 적고 있다. 이 점은 표준어도 마찬가지다. ‘딛>딛’는 처격 변화이고, ‘딛>데’는 명사의 변화다. ‘어디’를 제외하고 ‘의’를 유지하고 있다면 고유어에도 ‘의’로 적어야 할 것이다.

(5) 파생어

파생어 가운데 <표기법 1> 제23항의 ‘수눔음’과 <표기법 2> 제9항의 ‘수눔’과 차이를 보인다. <표기법 2> 제9항은, “다만, ‘ㄹ’로 끝나는 어근에 접미사 ‘-ㄱ’이 붙어서 파생된 말은 어근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하여 ‘ㄱ물, 구물, 수눔, 즈눔’을 예시하고 있다. 이들 각각은 ‘ㄱ물다, 구물다, 수눔다, 즈눔다’에서 온 것으로, ‘수눔다’는 나머지 세 어휘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곧 ‘ㄱ물다, 구물다, 즈눔다’는 단일어인데 반하여 ‘수눔다’는 합성어이다.

[검질메는 건 수 안 누런쭈다.]

이 예는 《2011년도 제주 지역어 조사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의 조사 내용이다. “여기서도 수눔멍 검질메거나도 해쭈과?”에 대한 대답이다. 이 예를 통하여 ‘수눔다’는 ‘수+눔다’ 구성으로 합성어임을 확인해 준다. ‘수’는 ‘首’ 또는 ‘數’가 아닌가 하고 추정하고 있다. ‘수+눔다’ 구성의 ‘눔다[積]’(이 ‘눔다’는 ‘눔’과는 무접파생 관계를 이룸)는 아래 예에 따라 ‘-ㄱ’이 연결되어 ‘눔’이 파생됨을 짐작할 수 있다.

-ㄱ: 살다-삶, 알다-알

-음: 줄다-줄음, 얼다-얼음

36권의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에는 어휘 항목 조사에서 ‘수눔’이 10회, ‘수눔음’이 28회(구술 조사에서는 성읍1리, 수망리, 하원리, 구엄리 보고서에서 각각 1회씩 총 4회 나타남.) 조사되었다. 어휘 조사에서의 ‘수눔’은 ‘수눔’의 발음을 적은 게 아닌가 한다. ‘ㄹ’ 겹받침은 ‘앓[암], 삶[삼]’과 같이 ‘ㄹ’만 발음되기 때문이다.

그냥 도움 서로서로 그자 그자 일면 말하면 수눔어. 수눔으로 우리 제주도 방어가 그 옛날엔 그 수눔음이렌 헤여그네, 아주 그냥 쥔 침 역사적인 말인디, 게 수눔영.

위는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18: 남원읍 수망리)의 조사 내용인데, 밑줄 그은 ‘수눔으로(수눔으로)’에서 ‘수눔’을 확인하게 된다. [수눔미 어렵따]보다는 [수눔미 어렵따]가 언어 현실을 반영한 발화다.

또 32회나 조사된 ‘수눔음’도 잘못 되었다고 할 수 없으니, ‘수눔, 수눔음’ 모두 표기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4. 마무리

지금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제주어 표기법>의 표기 대상은 전통방언학 곧 지역 방언이어야 한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어 표기법>은 지역 방언은 물론 사회 방언까지 표기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잘못된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표기법 2>는 지역 방언의 ‘나끄다’와 사회 방언의 ‘뉘다’를 같은 것으로 보고, ‘뉘다’를 기준으로 한 활용표를 제시하고 있다. 어떤 음성적 환경에서도 ‘-곡’으로 실현되는 어미를, ‘뉘다’에서는 ‘뉘으곡’으로, ‘막다’에서는 ‘막곡’으로 쓰게 함으로써 어미 구조를 깨뜨리고 있다. 같은 ‘ㄱ’계통의 자음이라면 왜 ‘뉘다’는 ‘으’가 탈락하지 않아 ‘뉘으곡’이 되고, ‘막다’는 ‘으’가 탈락하여 ‘막곡’이 되는지를 설명해 줘야 한다. <표기법 2>로서는 설명할 수 없으니 어미 ‘-곡’이 지니는 특성에 따라 ‘뉘으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잘못된 표기 대상을 사회 방언에까지 확대한 데서 비롯한다.

또 ‘뉘는’은 사회 방언의 어형만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방언의 ‘나끄는’은 배

제되었다. 각종 현지 조사 보고서에서 확인되듯 ‘나끄는’이 절대적으로 쓰이는 언어 현실의 어형이다. 이 또한 사회 방언까지 표기 대상을 확대한 결과로 언어 현실을 바탕으로 한 지역 방언형 ‘나끄는’은 도외시하고 사회 방언형 ‘냠는’으로 적게 된 것이다.

이런 언어적 사실들을 통하여 지역 방언 ‘나끄다’와 사회 방언 ‘냠다’는 같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셋째, 선어말어미는 학자들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다. 어떤 학자는 ‘암시/엄시: 아시/어시’로, 어떤 학자는 ‘았/엿: 앓/엇’으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학문적으로 대립되는 내용은 어느 한쪽의 주장을 표기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학문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특히 현대 국어에 쓰이지 않는 ‘ㄷ’ 겹받침으로 표기하게 함으로써 제주어 표기법이 어렵다는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국립국어원의 개방형 국어사전인 <우리말샘>의 ‘방언 표기 원칙’도 현대 국어에 없는 겹받침은 음소적 표기를 하도록 하여, “을어⇒음씨” 등으로 적고 있음은 좋은 참고가 된다.

넷째, 한자어 표기를 세분함으로써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주어 표기법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여기에서 한자어인가 아닌가를 또 구별해야 하니 부담감이 수반된다. 특히 한자어에만 ‘ㄱ, ㄴ’을 쓰게 함으로써 제주어가 지니고 있는 다양성을 훼손하고 있다. 특히 한자어에서 ‘ㄴ’을 표기하게 한 것은 일종의 의고적 표기이다.

다섯째, 지역 방언이 표기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의당 의고적 표기를 추구하게 된다. ‘어디>어디’와 같은 변화가 있는가 하면 ‘거의>거의’, ‘히다>히다’와 같은 변화도 있으니 고유어에 ‘ㄴ’을 ‘ㄷ’로 강제할 필요는 없다. 고유어 ‘거의’, ‘히다[白]’가 각각 [거이], [히다]로 발음된다고 해서 ‘거이’, ‘히다’로 표기할 수는 없다.

여섯째, 표기법은 교육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평이성, 일반성을 지니고 있는 표기법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떡없저’, ‘굳으다’ 등 현대 국어에 없는 ‘ㄷ’ 겹받침이나 ㄷ 쌍받침 등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 나아가 제주어 보전과 육성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 특히 표기법이 일반인에게 공감을 주려고 한다면 꼭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많은 예가 <표기법>에 제시되어야 한다.

결국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어 표기법>은 지역 방언 중심의 표기법으로 수정되어야만 한다.

<참고문헌>

- 강영봉 등(2009),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강정희(2005), <처격 표지 ‘-디’의 국어사적 고찰>, 《제주방언 형태변화 연구》, 도서출판 역락.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원(2009),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고재환 등(2014), 《제주어 표기법 해설》, 제주발전연구원.
 국립국어연구소(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국립국어원(2004~2013), 《제주 지역어 조사 보고서》.
 김형규(1980), 《한국방언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남광우(1999/2008), 《교학 고어사전》, 교학사.
 박용후(1960/1988), 《제주방언연구》,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박재연·이현희 주편(2016), 《고어대사전》, 선문대학교출판부.
 방언연구회(2001), 《방언학 사전》, 태학사.
 북한사회과학원(1992), 《조선말대사전》, 사회과학출판사.
 석주명(1947), 《제주도방언집》, 서울신문사출판부.
 송상조(2007), 《제주말 큰사전》, 한국문화사.
 영주어문학회(2007), <제주어, 어떻게 표기할까>(2007정기 학술대회 요지집).
 유창돈(1964/1974), 《이조어사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이익섭(1984/2000), 《방언학》, 민음사.
 이희승(1961/1981), 《국어대사전》, 민중서림.
 정승철(1995), 《한국방언자료집》(제주도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2012), <제주어 표기법, 어떻게 해야 하나>(제주학연구센터 세미나 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2015), 《2015년 제주어 구술채록 보고서》(1~24).
 제주특별자치도(2016), 《2016년도 제주어 구술채록 보고서》(25~36).
 최학근(1990), 《증보 한국방언사전》, 명문당.
 한국방송공사(1993), 《표준 한국어 발음대사전》, 어문각.

한글학회(1947~1957), 《큰사전》, 을유문화사.

한글학회(1992),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현평효(1962), 《제주도방언연구》(제1집 자료편), 정연사.

현평효·강영봉(2011), 《제주어 조사·어미 사전》, 도서출판 각.

[부 록]

〈제주어 표기법 표준안〉 도민설명회

◆ 일 시 : 2013년 12월 13일(금) 15:00~17:00

◆ 장 소 :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어 표기법 표준안

목 차

제1장 총 칙
제2장 원형(본디 꼴)을 적는 것
제3장 변이형(바뀐 꼴)을 적는 것
제4장 굳어진 것을 적는 것 (부칙)

제1장 총 칙

제1항 목 적

제주어 표기법 표준안(이하 표준안)은 한글 맞춤법의 취지를 따라 제주 사람들이 쓰는 말의 표기 방법을 정하는 데 있다.

제2항 원리 및 방법

1. 이 표준안은 형태소의 원형(본디 꼴)을 적는 경우와 변이형(바뀐 꼴)을 적는 경우를 구별한다.
2. 표기가 이미 굳어진 것은 그대로 허용한다.

제3항 범 위

제주어가 지역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다르면 그 말들을 모두 인정한다.

제4항 자 모

이 표준안에서는 아래의 자모들을 써서 제주어를 적되 제주어의 음소와 아래의 자모가 일치하도록 한다.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ㄴ	ㅂ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ㅜ	ㅠ	ㅣ	ㅚ	ㅝ	ㅞ	ㅟ	ㅠ	ㅡ
ㅡ	ㅣ	ㅣ	·	·				

다만, ‘ㅇ’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의 초성 글자로도 쓰고, ‘ㄴ, ㄹ’은 한자 형태소를 적을 때만 쓴다.

제5항 합 자

1. 자음은 초성 글자와 받침 글자로 적고, 모음은 중성 글자로 적는다.
2. 제주어는 초성 글자와 중성 글자, 받침 글자를 모아서 적는다.

[붙임] 필요한 경우 자모의 결합도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원형(본디 꼴)을 적는 것

제6항 된소리

한 형태소 안에서 나는 된소리는 ‘ㄱ, ㄷ, ㅃ, ㅆ, ㅉ’으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스끼 어따 퍼뜩 나쁘(다) 마쌌/마쌌/마씨 주짱/조짱/쭈짱/쪼짱

2. /ㄴ, ㄹ, ㅁ, ㅇ/ 뒤에서 나는 된소리

빈찍/편찍 슬짜 늪삐 덩씩덩씩

다만, 한 어미 안에서 /ㄹ/ 뒤에 오는 된소리는 평음 글자로 적는다.

-을걸 -을디 -을수룩 -을지

[붙임]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지 않는 /ㄱ, ㅃ/ 뒤의 된소리는 평음 글자로 적는다.

녹대 역볼로 덕석 낙지
 겁대기 늪새 납작

제7항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자모로 적는다.

곱꺽하다 늑늑하다 닥닥 밋밋 북북 식식 족족

쫓쫓하다 딱딱하다 뻗뻗하다 쑥쑥
 푹푹불미

제8항 속 음

한자 형태소의 소리가 위치와 관계없이 본음에서 바뀐 것은 바뀐 대로 적는다.

곡식/곡속[穀食] 공치새[功致辭] 쉰당[簪黨] 농시/용시[農事] 당췌[當初]
 동세[同壻] 멘장[面長] 모냥[模樣] 땡/땡[瓶] 손지[孫子]
 웬수[怨讐] 즈석/즈식[子息] 즈네[潛女] 포[裸]

제9항 파생어

접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접두사와 어근을 밝혀 적는다.

홀아방 홀어멍 핫아방 핫어멍
 할아버지 할애비

2. ‘-이’나 ‘-음’, 또는 자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어근과 접미사를 구별하여 적는다.

다듬이	엇이/웃이	굳이	
끗들이	살림살이	골히눈이	절룩발이
늑적이	빙색이/빙색이	높이다	쌓이다
들음박질	줍음	수놓	
떨기다	돋구다	일루다	돌르다
울리다	앗지다	입지다	늦추다
받후다	굳히다	좃구다/좃추다	
짚숙(ㅎ다)	넓작(ㅎ다)	높직(이)	

[붙임]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어근과 접미사를 구별하여 적지 아니한다.

귀마구리 꼬락사니 스래기 스타귀/사타귀
 이파리 지동/지둥 지붕

다만, 사동/피동 접미사 ‘-우-’가 붙어서 이루어진 어간은 그 어근을 구별하여 적는다.

돋우다

제10항 체언과 조사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여 소리가 바뀌지 않거나 바뀌더라도 꼭 바뀔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체언과 조사의 원형을 적되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는다.

꽃/고장[花] :	꽃이/고장이	꽃을/고장을	꽃도/고장도	꽃만/고장만
낮[晝] :	낮이	낮을	낮도	낮만
논[畓] :	논이	논을	논도	논만
남[他人] :	남이	남을	남도	남만
독[鷄] :	독이	독을	독도	독만
말[馬] :	말이	말을	말도	말만
앞[前] :	앞이	앞을	앞도	앞만
영[懸崖] :	영이	영을	영도	영만
으뜸[八] :	으뜸이	으뜸을	으뜸도	으뜸만

제11항 어간과 어미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여 소리가 바뀌지 않거나 소리가 바뀌더라도 꼭 바뀔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는다.

뉘다[釣] :	뉘안	뉘으민	뉘으곡	뉘으느냐
넘다[越] :	넘언	넘으민	넘으곡	넘으느냐
높다[高] :	높안	높으민	높으곡	높으느냐
막다[壙] :	막안	막으민	막으곡	막으느냐
묻다[埋] :	묻언	묻으민	묻으곡	묻으느냐
살다[生] :	살안	살민	살으곡	살으느냐
안다[抱] :	안안	안으민	안으곡	안으느냐
잇다[連] :	잇언	잇으민	잇으곡	잇으느냐
잡다[把] :	잡안	잡으민	잡으곡	잡으느냐
좃다[從] :	좃안	좃으민	좃으곡	좃으느냐
좋다[好] :	좋안	좋으민	좋으곡	좋으느냐
훗다[索] :	훗안	훗으민	훗으곡	훗으느냐
고프다[飢] :	고프안	고프민	고프으곡	고프으느냐
바끄다[唾] :	바끄안	바끄민	바끄으곡	바끄으느냐
시끄다[載] :	시끄안	시끄민	시끄으곡	시끄으느냐

[붙임] 선어말어미 ‘-앗-/-엇-’이 모음어미나 자음어미와 결합할 때는 원형을 밝혀 적는다.

가다[去] : 갔어라	갔느냐	갔저	갔주
보다[見] : 봤어라	봤느냐	봤저	봤주
사다[立] : 샀어라	샀느냐	샀저	샀주
막다[防] : 막았어라	막느냐	막저	막주
답다[築] : 다왔어라	답느냐	답저	답주
낱다[産] : 낳어라	낳느냐	낳저	낳주

제3장 변이형(바뀐 꼴)을 적는 것

제 12항 두음법칙

한자 형태소가 단어의 첫머리에 와서 본디 소리와 다르게 발음되는 것은 발음되는 대로 적는다.

낙방(落榜)	냥(兩)	냥중(兩-)	녹각(鹿角)
니스무소[理事務所]	양편[兩便]	여즈[女子]	열녀(烈女)
예도(禮度)	요소(尿素)	용담(龍潭)	유리(琉璃)
이발(理髮)	음치[廉恥]		

[붙임] 모음과 /ㄴ/ 뒤에 오는 ‘렬, 률’은 ‘열, 율’로 적는다.

나열(羅列)	비율(比率)	분열(分裂)	진열(陳列)
--------	--------	--------	--------

제 13항 합성어

어휘 형태소가 다른 어휘 형태소와 어울릴 때 본디 소리와 다르게 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ㄹ’로 끝나는 어휘 형태소가 다른 어휘 형태소와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낱말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ㄹ대	뜨님	ㄹ날[午日]	ㄹ쉬	소남/소남
----	----	--------	----	-------

2. 모음으로 끝나는 어휘 형태소가 다른 어휘 형태소와 어울릴 적에, /ㅂ/ 소리가 덧나는 것은 ‘ㅂ’을 앞 글자의 받침 글자로 적는다.

줍쌀 चु쌀

3. 다른 어휘 형태소 뒤에서 어휘 형태소의 초성 /ㄱ, ㄷ, ㅂ, ㅈ/이 /ㅋ, ㅌ, ㅍ, ㅊ/로 바뀌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슬췌기	몹륙	동카름	보리크르
늑물팻	우영팻	조팻	
우녁칩	할망칩	식게칩	

제 14항 파생어

어원이 분명하나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하르방	하르바님	하리비	하르비
-----	------	-----	-----

제 15항 체언과 조사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여 꼭 바뀔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조사의 소리가 바뀌는 것은 바뀌는 대로 적되,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는다.

곶[藪] :	곶이	곶을	곶에	곶도	곶만
안[內] :		안홀	안헤/안네		
질[路] :		질홀	질헤/질헤에		
밧[外] :		밧글	밧게	밧기도	밧기만
밧[田] :				밧디도	밧디만
바깧[外] :		바깧딜		바깧디도	바깧디만
바궤[外] :		바궤딜		바궤디도	바궤디만
벧[太陽] :		벧딜	벧디에	벧디도	벧디만

다만, 다른 소리가 덧나기도 하고 덧나지 않기도 하는 것은 덧나지 않은 꼴로 적는다.

내[川]에	시[市]에	질레에
-------	-------	-----

제 16항 어간과 어미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여 꼭 바뀔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어간이나 어미의 소리가 바뀌는 것은 바뀌는 대로 적되,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는다.

1. 어간이 바뀌는 것

갈대[耨] :		가난			
걸대[步] :	걸었저	걸으난			
아프대[痛] :	아팠저				
오르대[登] :	올랐저	올르난	올르게	올르단	올를지도
조랍대[圃] :	조라왔저	조라우난			조라울지도
크대[長] :	컷저				

2.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것

흐다[爲] :	헛저	헤도	헤	헿
---------	----	----	---	---

제17항 준 말

준말은 준 대로 적는다.

1. 형태소 내부

(본딧말)	(준말)	(본딧말)	(준말)
무엇	무어/뉘	다솻	닷
그것	그거/거	기영/그영	경

2. 어간과 어미의 결합

(본딧말)	(준말)
헛여	헤
좋은	존

3. 어미와 어미의 결합

(본딧말)	(준말)
가키어	가켜

4. 조사와 조사의 결합

(본딧말)	(준말)
보다는	보단
에서는/이서는	에선/이선

5. 단어와 단어의 결합

(본딧말)	(준말)	(본딧말)	(준말)
어제즈낙	엇치낙/엇츄낙	그 아이	가이
저 아이	자이	이 아이	야이

제4장 굳어진 표기를 적는 것

제18항 /ㄷ/ 끝소리

본디부터 /ㄷ/이 아닌 음절의 끝소리는 ‘ㅅ’으로 적는다.

딛(니)	섯(들)	숫(구락)	스몯
웃(웃)	챗(새끼)	헛(일)	

제19항 한자 형태소 /ㄷ/(<ㄷ>), /ㄷ/(<ㄷ>), /ㄷ/(<ㄷ>)의 표기

한자 형태소는 표준어와 같게 적는다.

1. 표준어의 /ㄷ/와 /희/가 /ㅣ/와 /히/로 소리 나는 것

영희(英姬)	의원(醫院)	합의(合意)	희미(稀微)
--------	--------	--------	--------

2. 표준어의 /ㄷ/가 /ㄷ/로 소리 나는 것

계획(計劃)	은혜(恩惠)	폐백(幣帛)	혼례(婚禮)
--------	--------	--------	--------

3. 표준어의 /ㄷ/가 /ㄷ/로 소리 나는 것

괴이(怪異)	외국(外國)	외삼촌[外三寸]	쇠약(衰弱)
죄(罪)	최(崔)	퇴비(堆肥)	회의(會議)

제20항 합성어

고유어 어휘 형태소가 다른 어휘 형태소와 어울릴 때 본디 소리와 다르게 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모음과 평음 사이에서 /ㄷ/ 소리가 덧나는 것은 ‘ㅅ’을 앞 글자의 받침 글자로 적는다.

꿇벵
웃드르

꿇주시
정짓냥/정젯냥

댓순
정짓문/정젯문

수돗물

2. 모음과 /ㅣ/ 사이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은 ‘ㅅ’을 앞 글자의 받침 글자로 적는다.

꿇입 농숫일 바깳일/바젯일/배젯일 배갯잇 집잇일 흘젯일

[부 칙]

이 지침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한글 맞춤법에 따른다.

[제2주제]

‘제주어 표기법’ (제주도고시 제2014-115호) 을
왜 준수해야 하는가

양전형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 이사장

제2주제

‘제주어 표기법(제주도고시 제2014-115호)’을 왜 준수해야 하는가

목차

- 제주어의 가치와 현실
- 언어의 구술성과 문자성
- (현)표기법의 주요항목 : (제정전과 상이한 주요항목)
- 제주어표기법은 준수돼야 한다
 - ▶ 언어의 변화·진화
 - ▶ 제주어표기법의 의의
 - ▶ 국어의 변화과정(예) 일부
 - ▶ 교과서를 통한 통일·체계적인 교육현실
 - ▶ 결 론

■ 제주어의 가치와 현실

제주어가 2011년도 유네스코에 의해 소멸위기 4단계의 언어로 분류·등록됐습니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사라지는 세계의 언어를 5단계로 분류하여 5단계는 이미 소멸된 언어를 말함이고 4단계는 그 직전 언어를 지적함이니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언어는 문화를 담는 그릇이라고들 말합니다. 제주어가 없어지는 것이 언어자체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제주도의 문화와 전통, 예부터 제주어로 전승되어지는 신화나 교훈되는 지식 등 제주의 중요한 얼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자료에서 “제주에서 제주어를 구사하는 도민이 전체 도민의 13%에 불과하다” 또 다른 자료에선 “제주도민 중 제주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1만명 내외에 불과하다”라는 글을 보면 우리 제주어가 어느 위치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학교 등 교육방향이 표준어 쓰기를 권장해 왔고 순수 제주어를 사용하면 배우지 못한 무식쟁이거나 아니면 제주어의 투박성(예: ‘잘 모르겠습니다’를 ‘잘 몰르쿠다’로)으로 인해 어떤 반항의도로 해석되기도 했었고 표준어를 잘 구사해야만이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으로 평가되는, 어찌면 ‘제주어 잊히기’식의 교육현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경험한 세대가 어른이 된 후에도 자녀들 교육 등에 표준어 사용을 유도하였고 신문 방송 등 새롭게 넘쳐나는 매체들이 온통 표준어로만 덮여져 있었는데 그 틈에 제주어를 끼워 넣는 궁통이가 있었을 리 없었으니 제주어가 지금의 현실에 당면한 것은 저를 비롯한 기성인 제주인들의 자업자득인 셈이라고도 생각됩니다.

유네스코가 추정한 세계의 언어 범위가 6,000~7,000개라 합니다. 이들 중 다수의 언어가 멸종 위기의 상황에 있다고 하며 최악의 경우는 10~20%의 언어만이 살아남을 것으로 추정된다 합니다.

언어도 동물처럼 멸종한다는데 그 위험에 처한 언어들의 위험사유를 살펴보면, 소수민이 언어가 그 사용자들이 사망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며, 또 하나는 현대사회에서 매체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유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언어를 보전하려는 의욕이 부족할 때와 약육강식의 언어 말살 정책, 국가정책·문화유산의 사멸,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문자가 없는 언어가 쉽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주어는 정말 값진 언어입니다.

제주에서 조상대대로 사용되며 이어지는 말로써 다른 지방의 사투리나 방언 차원을 넘어 고유언어로써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 제주어는 다른 지방 방언과 달리 고어가 많이 보전되어 있고 차용어도 많습니다. 또한 훈민정음 창제당시의 모음 중 ‘아래아’ 발음이 분명하게 남아있고 제주어 사용자들이 이를 정확히 발음하며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0 독자적이고 독특한 각종 품사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조사, 감탄사 등 거의 모든 품사)

0 한문과 외래어 등이 차용되며 모든 의사소통이 가능한 표준어처럼, 제주어도 일부 표준어를 차용하면 거의 모든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0 어미활용 등 모든 언어 활용이 체계적이고 규칙적으로 가능합니다.

0 독특하게 받침 ‘ㄴ’ ‘ㅇ’을 매개로 한 시제구분이나 때가림소 등이 이루어

집니다.

0 어느 국가 어느 지역에서도 상상해 낼 수 없는, 창의적이면서 상당히 이국적이고 독특하면서도 분명하고 깊이 있게 상호간 전달이 됩니다.

0 제주의 역사·전통문화 등이 녹아있고 제주의 정체성과 열이 깃들여 있는 주체입니다. 즉, 주인공이 제주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 언어의 구술성과 문자성

0 생물의 모든 활동이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언어도 변화를 계속하는 환경으로부터 생겨나기도 하고 갖가지 압력도 받는다고 합니다. 한 민족 또는 지역의 문화체계에 생기는 변화는 필연적으로 그 언어의 일부에도 변화를 초래한다 합니다. 낡은 단어나 표현은 사용되지 않게도 되고, 그 의미가 바뀌지기도 하는 한편, 새로운 낱말도 도입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화자 자체가 변화해 간다는 것. 기존의 화자들은 성장하고 늙고 죽어가는 한편, 새로운 화자들이 태어납니다. 언어의 새로운 학습자는 전배와는 다른 식으로 학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화자로부터 다음 세대로의 전승이 언제나 기존대로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짐에 따라 언어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 과정은 완만하지만 같은 공동체 안의 고령자와 젊은이의 말의 차이에 주목함으로써 관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휘와 관습에서의 특수한 변화는 얼마간은 돌발적으로 일어나고, 누구나가 자기의 말이나 동료의 말 가운데서 그러한 변화를 알아차립니다. 특히, 입과 귀 사이의 구술적인 것은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여러 상황속에서도 기본적인 지역언어는 전달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그대로 남겨 이어져가야하고 전승이 되어야 합니다. 문자가 활성화되고 확인 가능한 존재로 남는 경우에는 이러한 변화의 역사를 추적하기 쉬울 것이 틀림 없습니다.

0 글로 쓰는 문학이 언어예술이며 언어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타 예술과 구별됩니다. 이에 제주어문학도 구술성과 문자성을 결합하여 제주어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한편, 시각과 청각·촉각 등을 공감각적으로 표현하여야 합니다.

제주어 작품들이 단순한 옛이야기의 나열이나 사건을 기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문학이란 작가가 살고 있는 현실에 뿌리를 두고 과거와 미래를 살피기도 하지만, 당대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당대 현실을 올바른 글로 그릴 때 그 의미는 더욱 선명해지고 독자와의 교류도 활발해지는 한

편 독자와의 상호교통도 원활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문학측면에서의 글과 표기의 중요성)

0 지역어는 문자성보다 구술성이 우선시 됩니다. 지역어란 표준어와는 달리 특정 지역에서 구술되고 있고, 그 언어를 문학에 활용한다는 것은 그 언어의 속성을 그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0 구술성에도 예술적이고 인간의 가치를 지닌 아름다운 언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문학의 주 영역은 문자성에 있는 만큼 어려운 작업일지라도 지역어를 문자화 속으로 끌어들어야 됩니다. 쓰기(문자성)가 없다면 인간의식은 문학이나 예술 등 잠재능력을 넓게 발휘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성준 저 - 제주어 문학의 위상과 가능성(2013 제주대탐라문화연구소)에서 일부 인용)

0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말의 특징은 말하는 사람의 행동, 몸, 분위기를 직접 보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에 의한 쌍방향 의사소통입니다. 서로 듣고 반응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며, 주로 말소리에 의존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기록을 할 수 없어 기억해야 합니다. 전부를 기억할 수 없으니 기억하기 쉬운 형태로 머릿속에 넣어두고, 말의 선후 순서나 어휘 등을 정확히 검증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서적 각인이 중요합니다. 두고두고 확인할 수 있는 문자에 비해 허공으로 분산되어 흔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구술문화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말은 있고 글이 없는 언어가 쉽게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인식할 수 있겠고, 말로만 전달과정은 그 어휘들을 표기로 옮기는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생기리라 봅니다. 제주어가 지역마다 다르게 통용되는 말들도 대부분 문자로 옮겨지지 못하고 표기를 전면에 내세우는 문화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표기란, 겉으로 나타나게 기록하는 문자문화의 기본수단인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는 것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도 일관된 표기법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주어의 영원한 전승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 제주어의 올바른 표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쓰기’ 중심의 문자기록을 유지하면서 변화하는 과정이 이목으로 확인되도록 하면서 전승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대의 표기방법 등 약속이 지켜져야 하고, 쓰기 중심의 보전이 반드시 있

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주어말하기대회’도 필요하지만 언어전달과정에서 오류로 인한 틀린 표기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제주어문학백일장’이거나 “제주어로 쓴 생활수기 공모” 또는 제시되는 표준어를 제주어로 역(譯)하는 ‘제주어쓰기대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한다면, 제주어 구술 문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먼 훗날을 상상해 봤을 때 눈으로 기록확인이 가능한 문자문화의 중요성이 크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현대 한국어는 아래아(·)를 잃어버려서 모음사각도의 우하변의 기본 발음 위치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현대 한국어는 모음삼각도가 되었고, 모음이 입의 좁은 공간 안에서 상하운동을 중심으로 소리남에 따라, 15세기에 영어처럼 모음사각도 안에서 내던 울림이 깊고 성조 있는 소리를 잃게 되었다. 제주도 사투리에서 아래아(·)를 마지막까지 갖고 있었으나, 이제 21세기에 이르러 아래아(·)는 제주도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의 전설이 되어가고 있다. 제주도 방언을 녹음한 소리가 남아있다고 하니 그 소리를 분석하면 아래아(·)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요즘 사람들이 영어의 [ʌ] 발음을 잘못하는 데에서 볼 수 있 듯, 언중(言衆)들이 아래아(·) 발음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라져가고 있다. 아직 제주어에는 아래아 발음이 남아있다. ‘물 보름’ - 아래아(·)의 발음은 영어 'cut'의 u 발음[ʌ]과 유사하다고 본다. (‘훈민정음의 모음 연구’에서)

■ (현)표기법의 주요항목:(제정전과 상이한 주요항목)

● 현재의 제주어표기법(제주도고시 제2014-115호(2014.7.18.)과 그 해설집(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총서13: 2104.10,20 : 집필진-고재환 송상조 김지흥 오창명 오승훈 문순덕)을 기준으로 한 주요항목

● 준다, 든다, 든다 -- 골으라, 들으라, 들으라 ~ 끝소리 ‘ㄷ’이 불규칙 활용동사 (해설 30쪽)

● 1조 4항 (자모) ---모음 ‘ㄴ, ㄹ’ 는 한자형태소를 적을 때만 쓴다 (해설 39쪽)

의원 외국 의사 합의 죄 퇴비 회의 등

● 1조 3항 (통합성·포괄성) --- 지역적, 사회적 변이체 모두 인정 (해설 33쪽)

재열 재 자리 짬 잘 자 등

● ‘익영’ ---표준어(익영) 영향에서 벗어나서 ‘익영’ (해설집 42쪽)

● 안냄서 감서 흡서 먹읍서 맵서 국시 쟈시 ---된소리 현상 평음으로 적음 (해설 47쪽)

● 1조 8항 (속음) ---제주어로 굳어진 한자어들 (해설 51~59쪽)

곡식(곡석) 공치사(공치새) 권당(퀘당) 가마(가메) 공부(공비) 남자(남즈 남제) 농사(농시) 당초(당취) 동서(동세) 모양(모냥) 면장(멘장) 모자(모즈) 문서(문세) 명주(멩지) 명(멩 밍) 목수(목시 목쉬) 묘(메 - 멧자리 고칫메 호박메) 병원(빙원 뵙원 빙완 뵙완) 보(포) 병(뵙 뵙) 병(빙 뵙) 법(뵙) 부조(부지 부주) 봉어 승어 은어 장어(봉에 승에 은에 장애) 사정(스정) 손자(손지) 상자(상즈) 식초(식취) 세상(시상) 사월(스월) 삼춘(삼춘 스춘 오춘) 원수(웬수) 이익(이억 이역) 양식(양석) 여자(여즈 여제) 액자(액즈) 의자(의즈) 양자(양즈) 양초(양취) 연습(연십) 여편(예편) 자식(즈석) 자연(즈연) 자동차(즈동츠 즈동채) 잠녀(즈녀 즈네) 장사(장스 장시) 주(취 -냥 혼 취) 주인(주연) 치마(치메) 팔자(팔즈 팔제) 편지(핀지 펜지) 학교(훅교) 형(성) 효자(소즈 소제) 흥년(승년) 흥계(승계) 흥사(승시) 효녀(소네)

● 파생어 부분

높직이 질직이 멀직이 엇다 웃다 곧후다(곧게하다) 받후다(받치다) 곧후다(곧게 하다) 넘어 좇이 굿이 느랏이 늘씩이 들음박질 (해설 63 ~67쪽)

● 조사처럼 쓰이는 후치사 - ᄇ라 신디 안티 초록 추록

● 한글맞춤법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띄어쓰기나 사전설명이 일관되지 않은 것들이 허다하다. 현재의 제주어표기법(제주도에서 2014년도 제정 및 고시)은 처음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 진지하게 하나의 안을 확정한 것인데 한글맞춤법보다 더 정연하고 명시적이다(해설 81쪽)

● 한때, 왜곡되게 제주어의 모습을 일부러 (뉘와지곡 트라지곡 벨나게) 음성형만을 쓴다거가 괴벽스럽고 이례적으로만 보일려고 착각했던 적이 있었다 (해설 83쪽) * 예) : 사늘 씨더랭 ᄇ난, 아풍 거 조케, 세그므로 득글 바찌난, 강생이 주꺼가난 득기 우림찌 따위(음성형만)- 벨나게 보이려는 듯

(현행) 낚안 낚으민 맡으다 흘으다 높으다 깊으다

(현행) 각으다 덕으다 묏으다 밖으다 받으다 북으다 북으다 엮으다 휘으다 좇으다 (해설 86쪽)

● 처격조사 (해설 112 - 113) - 한때 ‘딤’로도 쓰였으나 제주어 화자들 대부분이 ‘디’로 발음하는 경향이 강해 ‘디’형태를 인정

궂디 밧디 솟디 즈궂디 머리밧디 우티 뒤티 (별예) - 힌밥(곤밥), 혼디

● 이시다 시다 잇다 잇다 --- 수의적 사용

● 맡으다 열으다 질으다 붙으다 곱으다 흘으다 (해설 125쪽)

● 싶으다 엮으다 질으다 얹으다 갇으다 (해설 126쪽)

● 높임 형태소---제주어 일부로 기술되어야 옳다고 보는 일부의견 (해설 145쪽)
그러십주, 경흐십주, 밥 자십서, 주무십서, 펜안흐시우파,

● ‘암시’와‘아시’,-‘암ㅅ’와‘앗’,--어느 하나를 기본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해설168-173쪽)

* 암신게/아신게, 암실테주/아실테주, 암시네/아시네, 암시난/아시난,
암시멘/아시멘

* 암스인게/앗인게, 암스일테주/앗일테주, 감스네/갓네, 먹엄스네/먹엇네, 감
스어고/갓어고

***** 먹엄스주/먹엇주, 감스주/갓주, 감스저/갓저, 왓스주/왓주,

● **하다 허다**

● **준말** * 놓다 - 놓앙(냥), 놓안(난), 놓암스저(남저), 놓앗저(낫저)

* 좋다 - 좋앙, 좋안 (조앙(x), 조안(x), 좡(x), 관(x)) -----좋은(존
(o))-표기법17항

* 녹다 - 누윙(녕), 누윈(윈) (해설 208쪽)

● 제주어 첫음절은 ‘ㄱ’ 나 ‘ㄱ’로 발음되지만 둘째 음절에는 ‘ㄱ’로만 발음된
다 (해설 238쪽)

베갯잇(o) 베갯잇(x)

● (하다 ▶ 하다, 혀 ▶ 해)처럼 양성모음은 양성모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제주어표기법 제17항’ 기준 - 혀 ▶ 해, 혀연 ▶ 헐, 혀엇저 ▶ 헛
저, 좋은 ▶ 존

- 부칙 1. 사회적으로 지역적으로 다른 제주어는 모두 인정하여 적는다
 굴갱이 굴게 굴각지, 숫구락 숫가락, 광 강 과 가 팡 깡, 부터 부
 떠, 모르다 몰르다, 을디사 을티사
- 2. 이 표기법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한글맞춤법에 따른다

■ **제주어표기법은 준수돼야 한다(제주도고시 제2014-115호(2014.7.18.))**

▶ 언어의 변화·진화

언어도 생물처럼 변화·진화를 합니다. 낡은 낱말이나 표현은 사용되지 않게
되거나 그 의미를 바꾸기도 하는 한편, 모든 동식물이 성장하고 늙고 죽어가는

것처럼 언어에도 새로운 화자 새로운 화제거리가 생기며 변화해가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방식 말하는 방식도 일정하지 않을 수 있고 남에게 모방 당하기도 하고 남을 모방하기도 하며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의 화자가 다음 세대를 향해 있는 그대로를 완벽하게 전승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 제주어표기법의 의의

<제주어표기법>은 제주어학자들이 학문과 학술적으로 연구된 제주어 표기방법을 언중(言衆)들이 통용하도록, 제주도에서 학자들에게 의뢰하고 논의를 거친 후 확정고시한 최초의 기본지침인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자신의 이론 또는 선호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이 표기법을 외면하고 자기의 표기만을 고집하고 사용한다면 표기법이 존재할 가치가 없겠지요. 제주도에서 학자님들에게 의뢰하여 통일한 표기법을 제주도고시로 발효된 것은, 이 <제주어표기법>이 학자 각각의 개인의 것이 아니라 제주어를 사용하는 언중들끼리의 약속인 것입니다. <한글맞춤법>이 우리나라 표준어의 지침인 것처럼 <제주어표기법>도 설령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제주어 시용자들이 지켜나가야 할 기준인 것입니다.

▶ 국어의 변화과정(예) 일부

우리나라 국어의 표준인 <한글맞춤법>도 제정당시 학자들의 학문·학술을 종합하면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표기도 바꾸고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말도 탄생되면서 개정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규정에 따라 각종문서나 교육 등에 원칙으로 삼고 준수되어지는 것입니다.

0 한글맞춤법의 기능

* 통일이 안되면 문자생활에 혼란이 온다(방지기능) - 제주어표기법도 동일 취지

**** 모든 시험도 대부분 문자로 본다

* 독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한다

예1) 상처 → 상추 ----굳어진 현실(말)이 ‘상추’를 많이 사용하다보니 표준

어규정 제11조(모음의 발음변화 때문)의 사유로 개정

예2) 하였습니다 → 하였습니다 -----오래도록 사용해오던 표기를 바꿨습니다

예3) 국어사전에 새로 등재된 단어 <삼식이 남편>

예4) 옛말에 사용하던 처격조사 ‘기’의 변화

0 처격조사 ‘기’가 단독으로 사용된 예가 있다는 흔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자비도량참범음독구결’에)

* 여기저기→‘여기저기’로 현재 바뀌었다고 한글이 없어지지 않음

* 이디저디→‘이디저디’로 현재 바뀌었다고 제주어가 없어진 게 아님

(필자가 이 말을 옳다고만 주장하는게 아니라, ‘이디저디’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이디저디’로 바뀌거나 ‘ㄹ치’가 ‘굴이’ 등으로 바뀌면 제주어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예시를 했습니다)

* 금춘의 시조 한 수(금춘 : 조선시대 기생)

나도 이러흐나 낙양성동 호접이로다 / 광풍이 지블려 여기저기 든니더니 / 색외에 명화일지에 안자보려 흐노라

* 김소월의 시들

뒷산에 솔숲페 / 우는 새는 / 당신의 집 뒷산 새라지요 // 새소리 법국 / 법국 법국 / 여기서 법국 저기서 법국 / 나제는 갖다가 / 밤에 와 울면 / 당신이 날 그리는 소리라지요 // 내일 모래는 일요일 / 두루두루두루루 / 자전거 타고서 가우리다

(‘자전거’ 중, ---1925년 4월 15일 동아일보)

나려안즌 석가래 여기저기 널리고 / 타다남은 네 기둥은 / 주춤주춤 스거질 듯 그러나 나는 그 중에 / 불길이 활터운 화초밭 물스그럽이 섰구나 // -----더욱 더욱 이것을 이려고 보니 / 식원한 내 세상이 내 가슴에 오누나 (‘불탄자리’ 중, ---1925년 조선문단 12호)

* 제주어 시 한편

<어명광 딸>

허운데기도 문직곡

양지에 분도 치닥치닥 넙이 문데기지 말앙
 마직이 불랑 텅기라
 저 들벙이 곶이 가달 내 논 뿐 보라
 누겔 냘으코 흐염신디사
 흙치 문 벗엉 텅기주기
 주랑주랑 풀에 찬 것덜광
 그 흘모개긴 못즌디지 안흐염신가원

내뽻서게 어무니
 오랜만이 존 디 가보쟁 흐는디
 문 나가 알앙흐는 나 몸 아니우파
 무사 어떻 꺼우파

아고게, 무사 아니라게 기주기
 공추새가 아니여, 나가 문딱
 문들락기 내여논 몸 아니가

* 제주어 산문 한편

<어멍광 딸>

어느 시장통이서 밀³루²광 양념을 잘 섞어그네 만두²광 찢²빵을 멘들²앙 푹
 는 어멍이 서나수다. 어느 날, 그날은 공일날이난 흐나 신 딸이 미술²혹²원²엘 가고
 어멍은 찢²빵을 푹는디 갑제기 날이 우천²게²마는 그레비가 오래 느려가²난 어멍은
 딸이 걱정²뉘²연 우산²을 으²전 미술²혹²원²을 찾아가²십²주. 혹원 문을 올안 들어사²단 생
 각²혀²보²난 이²녁 모양이 넙이 황당²흐 거²라²마²썸. 헛헛²헛 신²광 밀³꺾²들이 대²작²대²작
 문은 주²려 닦은 옷광, 분칠 흐나 안 흐 양²지²쫘²광 과상²흐 허운²데²기²광, 그디 신 사
 림²덜이 이²상²흐 내²움²살²도 말음²직 흐연, 구²체²봐²지²카²부²뉘² 건물 앞이²서 지드²리²젠 막
 음 먹연 그²만²이 산 시²난, 가²참²고 높은 우이²층²이²서 딸이 느려보²는 거²라²마²썸. 어멍
 은 반²가²완 손²을 흥글²어²신²디 딸은 고개²를 확 돌려²불²언²마²썸. 게고, 딸이 비죽²이 고
 개 내²밀²앙 이덜 바러²탁 자꼬 곱아²불²엇²탁 혀여²가²난 어멍은 “아이고 날 부치²려²완
흐염²구²나” 흐고 섭섭²이 생각²흐²단 그냥 돌아²와 불어²십²주.

그루후제 어느 날, 딸이 “엄마, 흑원에서 나가 그린 그림이 대상을 받았수다. 부모님덜토 다 왕 볼생 큰 전시회를 홀 거마썸. 널랑 똑 와그네 보곡 나영 흔디 집이 가게양” 흐고 콜안마썸. 어멍은 흑원엘강 보는게 부치러와뻬연 어멍흐코 흐단, 게도 안 가민 딸이 애수룩하게 생각흐카부덴 조막조막흐멍 가십주. 이디저디 슬피단 딸 일흠이 봐전 간 보난, ‘자락자락 느리는 비에, 밀꺠루 반죽이 대작대작 묻은 거랑거랑흐주럭 닮은 옷에, 우산을 들런 비룽이 브레는 자부생이가 똑 이녀 닮은 예펜’ 그림이 그려전 췌고, 그 우티 ‘시상이서 질롱 곱닥흐 얼굴’이렐 흐 제목이 대상으로 걸어전 신 거라마썸. 딸이 그 비오는 날 야겔 내밀안 바력바력흐멍 그림으로 웅기던 생각이 나고, 딸 속도 몰르고 섭섭흐엇던 이녀이 더 부치럽고 가심이 딱딱흐멍 딸이 고마완 눈물이 잘잘 나와져십주기. 말짜엔 딸광 글이 빙색이 손 꼭 심언 집더레 갖젠마썸. (인터넷 속 이야기 : 제주어번역)

▶ 통일·체계적인 교육현실

이렇듯, 시대에 따라 언어과학·타당성·객관성(사용자의 다수 등) 등에 따라 변화되고 그 바뀐 표기를 존중하면서 사용하자고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생단체를 대상으로 제주어를 가르칠 때도 현재의 표기법을 가르쳐야 하겠고, 표준어인 경우도 학생들이 수능시험에서 정·오답을 구분할 때 최종 개정된 현재의 맞춤법을 정답으로 하여 점수를 얻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서류에, 작가들의 모든 작품 속(의도적인 파격표현은 제외)에, 각종 기사 등 모든 매체에서도 정확하게 지켜나가자는 약속의 표기들인 것입니다. 그 글 작성자들이 자기의 글 속에 맞춤법이 틀려 있으면 부끄러워지지 않겠습니까?

▶ 결론

1. 제주어가 유네스코에 ‘소멸위기의 언어’로 등록된 건 제주어의 가치를 인정하고 중요한 무형의 문화라고 인정받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집약하여 표현’하면서 조상대대로 내려온 언어이며, 제주어를 통하여 전통제주인들의 문화와 정신을 알 수 있습니다. 제주의 정체성이 녹아있다고 바꿔 말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현재, 제주도를 비롯한 각 행정기관·제주도교육청을 비롯한 각급 산하기관과 학교 등 여러 사회단체에서 이 아까운 제주어를 반드시 살려야한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제정되어 있는 <제주어표기법> 또한 그 노

력중의 하나로 큰 비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어의 소멸’은 ‘존재의 소멸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경’은 꼭 보전해야 한다고 강력한 주장을 하면서 ‘언어’의 보전은 그만큼 강력한 인식이 왜 없는지 안타깝습니다.

제정된 이 <제주어표기법>의 가장 큰 의미는 제주어의 본질이나 형식을 퇴색시키거나 논란을 야기하여 제주어를 약화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 본질과 형식을 보다 더 명확히 하고, 제주어 언중(言衆)들 간에 단단한 약속을 통하여 제주어를 체계적으로 잘 전승하기 위한 큰 수단인 것입니다.

2. 쓰기 기준인 제주어표기법 제정이 5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글맞춤법>도 필요에 따라 개정되어 왔듯이 제주어도 언어사용자들로부터 개정이 필요하다고 나오는 의견이 있는 표기부분은, 언어도 생물처럼 변화·진화를 한다는 논리에 맞춰 다시 학자님들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모여 언어과학 측면·타당성·객관성(사용자의 다수등) 등을 종합하여 발전된 방향으로 논의 및 합의하고 개정고시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제주어 사용과 관련하여 현재의 표기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실제활용에 필요한 부분들을 수용하는 것과 표기법상 어려운 부분들 예를 들면, ❶ 고재환박사의 ‘구술첨사·경어법’ 등 기타부분과, (제주도사전상):시간(시제)를 나타내며 용언 어간에 붙는 ‘ㄴ’ 과 ‘ㅇ’ 부분, (송상조박사의 ‘시제만이 아니라 통사의 최종 씨끝(어미)들의 호응에 따라 용언 어간에 붙는 ‘때가림소’인 ‘ㄴ’ 과 ‘ㅇ’ 부분 등이 분명하게 들어있으면 좋겠고 ❷ 또, 보기만 해도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의 하나 즉, 받침 ‘ㄹㅅ’이 들어가는 표기 등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아도 제주어가 어렵다고 기피를 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된소리화 되는 것(집이 감ㅅ저 등)을 제외하고는 ‘ㄹㅅ’받침 없이, 그것이 혹 언어학이나 언어형태분석에 어긋나더라도 좋은 방법을 논의하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으로 갓으면 좋겠습니다.

3. 종결하겠습니다. 본 주제발표는 어디까지나 제주어를 아끼고 사용하는 언중의 한사람으로서의 제 주장입니다. 발표내용 중에 학문·학술적으로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거나 잘못 설명한 부분들이 있다면 널리 해량하여 주시고, 이 시대 우리 제주어를 사용하는 언중들은 한 단계 더 진화되는 다음 개정시까지 누구를 막론하고 현재의 <제주어표기법>을 준수해야 함이 옳다고 재차 주장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참고자료

<제주시 2017년 제주어문양개발사업의 제주어들>

10선: 놀멍쉬멍 느영나영 돌하르방 멘도롱하다 문딱 바당 빙삭빙삭 올레 으망지다 흔저읍서

30선: 곱들락하다 놀멍쉬멍 느영나영 돌하르방 들코롬하다 딱뜻하다 마농 멘도롱하다 문딱 목국 뭉생이 바당 베롱베롱 빙삭빙삭 숨비소리 아깝다 오름 오명가명 오메기 올레 와랑와랑 으망지다 지꺼지다 코시롱하다 하영 흔디모영 흔저읍서 (10선포함)

민요: 이어싸나

속담: 곧은 낭이 가운데 산다. 떡돌도 뜰림시민 굶기 난다

제주도민 30위(순서대로): 느영나영 으망지다 올레 문딱 딱뜻하다 흔저읍서 멘도롱하다 꽃자왈 바당 놀멍쉬멍 들코롬하다 흔디모영 오명가명 돌하르방 코시롱하다 빙삭빙삭 곱들락하다 하영 아깝다 오름 숨비소리 목국 마농 브름 빙떡 오메기 지꺼지다 정낭 지슬 베지근하다

이주민도민 30위(순서대로): 느영나영 올레 놀멍쉬멍 바당 꽃자왈 오름 흔저읍서 돌하르방 오명가명 흔디모영 들코롬하다 숨비소리 멘도롱하다 하영 오메기 와랑와랑 코시롱하다 목국 문딱 베롱베롱 브름 빙떡 감수강 할망하르방 빙삭빙삭 딱뜻하다 어멍아방 도새기 마농 정낭

100선: 흔저읍서 비바리 영등할망 갈중이적삼 읍데강 즈녀 설문대할망 애기구덕 감수광 가름 자청비 까마귀까옥생인조작 속앗수다 올레 할망당 꼼짝꼼 짝고사리꼼짝 무사마썸 정낭 굴을락 느영나영 어멍아방 물팡 곱을락 오돌또기 할망하르방 허벅 들을락 이어도사나 가시어멍가시아방 살레 들탈락 서우젯소리 삼춘 우영 배뿔락 게들레기도집은짓나 켤당 돌하르방 예숙제길락 곧은낭이가운데산다 떡돌도뜰림시민굶기난다 늪빼 건드럽다 브름 어렁이 베롱베롱 사둔광짐바린골라사한다 마농 지꺼지다 숨비소리 자리 빙삭빙삭 짐진사름이팡을춧나 지슬 코삿하다 상고지 흔디모영 동그랭이 곧밥 들코롬하다 아깝다 다물 오명가명 오고생이 목국 좁작하다 으망지다 폭낭 놀멍쉬멍 으보록스보록 즈베기 베지근하다 곱들락하다 뭉쿠실낭 강뿔왕 하영 개역 코시롱하다 할락

산 도새기 영영 문딱 빙떡 딱뜻하다 오름 몽생이 수눌음 하간 쉰다리 멘도롱하
다 곱자왈 구제기 와랑와랑 양 오메기 산도록하다 바당 물꾸럭 과랑과랑 게메

[부 록]

제주어 어문규범(제주어 표기법)

일 러 두 기

1. 제주어 표기법은 제주 사람들이 쓰는 말의 표기 방법을 정함으로써 일정한 원리에 따라 제주어로 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제주어의 적극적 사용과 보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제정 목적을 둬.
2. 제주어 표기법을 구성하는 용어 중 ‘제주어’는 ‘제춧말’, ‘제주방언’ 등과 동일한 의미로, ‘표기법’은 ‘표기 방법’, ‘표기 지침’의 의미로 사용함.
3. 여기에 사용한 부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 (1) 한자, 한자어 표시에 사용하는 부호
 - () (소괄호) 예시 어휘와 그에 병기한 한자, 한자어의 음이 같을 때 씀.
<예> 시(市)
 - [] (대괄호) 예시 어휘와 그에 병기한 한자, 한자어의 음이 다를 때 씀.
<예> 삼춘[三寸]
 - (2) 그 밖의 부호
 - / / (양쪽 빗금) 음소 표시에 씀.
 - ‘ ’ (작은따옴표) 형태 표시에 씀.
 - (붙임표) 접사나 어미 등 의존형태소를 나타낼 때 씀.
<예> -음, -을디
 - ~ (물결표) 소괄호 밖의 요소와 결합될 수 있는 형태소 및 형태소의 결합형을 표시할 때 씀.
<예> 나쁘(~다), 줍작(~ㅎ다)
 - / (빗금) 지역적·사회적으로 다른 제주어나 그 밖에 대응되는 것을 나란히 적을 때 씀.
<예> 엇치냐/엇츠냐
 - () (소괄호) 고유어 어간이나 어근 뒤에 씀.
<예> 슷(~구락)

차 례

제1장 총 칙	3
제1항 목 적	3
제2항 원리 및 방법	3
제3항 범 위	3
제4항 자 모	3
제5항 합 자	4
제2장 본디 꼴을 적는 것	4
제6항 된소리	4
제7항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	5
제8항 속 음	5
제9항 파생어	6
제10항 체언과 조사	7
제11항 어간과 어미	7
제3장 바뀐 꼴을 적는 것	8
제12항 두음법칙	8
제13항 합성어	8
제14항 파생어	9
제15항 체언과 조사	9
제16항 어간과 어미	10
제17항 준 말	10

제4장 굳어진 표기	11
제18항 /ㄷ/ 끝소리	11
제19항 한자 형태소	12
제20항 합성어	12
부 칙	13

제주어 어문규범 (제주어 표기법)

제1장 총 칙

제1항 목 적

제주어 표기법(이하 ‘이 표기법’)의 목적은 한글 맞춤법의 취지에 따라 제주 사람들이 쓰는 말의 표기 방법을 정하는 데 있다.

제2항 원리 및 방법

1. 이 표기법은 형태소의 본디 꼴(원형)을 밝혀 적는 경우와 바뀐 꼴(변이형)을 적는 경우를 구별한다.
2. 표기가 이미 굳어진 것은 그대로 허용한다.

제3항 범 위

이 표기법에서는 통합성과 포괄성을 기준으로 삼아서 제주어를 적는다.

제4항 자 모

이 표기법에서는 제주어의 음소와 아래의 자모들이 일치하도록 하여 제주어를 적는다.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과 괘 귀 ګ ㅓ ګ ګ ګ ㅓ
 一 一 | . 〃

다만, ‘ㅇ’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의 초성 글자로도 쓰고, ‘ㄱ, ㅋ’는 한자 형태소를 적을 때만 쓴다.

제5항 합 자

1. 자음은 초성 글자와 받침 글자로 적고, 모음은 중성 글자로 적는다.
2. 제주어는 초성 글자와 중성 글자, 받침 글자를 모아서 적는다.

[붙임] 필요한 경우 자모의 결합도 사용할 수 있다.

제2장 본디 꼴을 적는 것

제6항 된소리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나는 된소리는 ‘ㄱ, ㄷ, ㅃ, ㅆ, ㅈ’으로 적는다.

1.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

스끼 어따/아따 나쁘(~다) 마쑈/마쑈/마쑈
 주쑈/조쑈/쑈쑈/쑈쑈

2. /ㄴ, ㄹ, ㅁ, ㅇ/ 뒤에서 나는 된소리

빈쑈/핀쑈 슬쑈 늪뻬 덩쑈덩쑈

다만, 하나의 어미 안에서 /ㄹ/ 뒤에 오는 된소리는 평음 글자로 적는다.

-을디/-을지 -을수룩/-을수룩

[붙임]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지 않는 /ㄱ, ㅂ/ 뒤의 된소리는 평음 글자로 적는다.

녹대	역불로	덕석	낙지
겹테기	놉새	납작	

제7항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것은 같은 자모로 적는다.

쫂쫂하다	딱딱하다	뻗뻗하다	쑥쑥
꺽꺽하다/꺽꺽하다	눅눅하다	닥닥	밋밋
식식	족족	독닥불미/뚝딱불미	

제8항 속 음

한자 형태소의 소리가 위치와 관계없이 본음에서 바뀐 것은 바뀐 대로 적는다.

곡석/곡숙[穀食]	공치새[功致辭]	권당[眷黨]	농시[農事]
당취[當初]	동세[同壻]	모냥[模樣]	멘장[面長]
포[褌]	병/뽕[瓶]	삼촌[三寸]	손지[孫子]
웬수[怨讐]	즈석/즈숙[子息]	잠네[潛女]	

제9항 파생어

접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접두사와 어근을 밝혀 적는다.

홀아방	홀어멍	핫아방	핫어멍
할아버지/할아버지	할애비		

2. ‘-이’나 ‘-음’ 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어근과 접미사를 밝히고 구별하여 적는다.

다듬이	엇이/웃이	굳이	
갓들이	살림살이	절룩발이	늑직이
빙색이/빙삭이	높이다	쌓이다	
돌음박질	줍음		

돋구다	벗기다/벧기다	올리다	짚숙(~ㅎ다)
좁작(~ㅎ다)	얏지다/얏지다	높직(~이)	늦추다
받후다	굳히다		

[붙임]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어근과 접미사를 구별하여 적지 아니한다.

귀마구리	꼬락사니	스래기	스타귀/사타귀
이파리	지동/지둥	지붕	

다만, ‘ㄹ’로 끝나는 어근에 접미사 ‘-ㄹ’이 붙어서 파생된 말은 어근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

ㄹ몹	구몹/그몹	수눔	즈눔
----	-------	----	----

제10항 체언과 조사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여 소리가 바뀌지 않거나, 바뀌더라도 꼭 바뀔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체언과 조사의 본디 꼴을 적되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는다.

독[鷄]	: 독이	독을	독도	독만
논[畓]	: 논이	논을	논도	논만
몰[馬]	: 몰이	몰을	몰도	몰만
눔[他人]	: 님이	눔을	눔도	눔만
으뜸[八]	: 으뜸이	으뜸을	으뜸도	으뜸만
꽃[花]	: 꽃이	꽃을	꽃도	꽃만
고장[花]	: 고장이	고장을	고장도	고장만
자리[蓆]	: 자리가	자리를/자릴	자리도	자리만

제11항 어간과 어미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여 소리가 바뀌지 않거나, 소리가 바뀌더라도 꼭 바뀔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은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는다.

뉘다[鈞]	: 뉘안	뉘으민	뉘으곡	뉘나	뉘는
넘다[越]	: 넘언	넘으민	넘곡	넘나	넘는
막다[障]	: 막안	막으민	막곡	막나	막는
묻다[埋]	: 묻언	묻으민	묻곡	묻나	묻는
살다[生]	: 살안	살민	살곡		사는
안다[抱]	: 안안	안으민	안곡	안나	안는
잇다[連]	: 잇언	잇으민	잇곡	잇나	잇는
잡다[把]	: 잡안	잡으민	잡곡	잡나	잡는

좃다[從] : 좃안 좃으민/좃이민 좃으곡/좃이곡 좃나 좃는
 좃다[索] : 좃안 좃으민/좃이민 좃곡 좃나 좃는

제3장 바뀐 꼴을 적는 것

제12항 두음법칙

한자 형태소가 단어의 첫머리에 와서 본디 소리와 다르게 발음되는 것은 발음되는 대로 적는다.

낙방(落榜)	냥(兩)	냥쥁(兩-)	녹각(鹿角)
니스무소(里事務所)	양편(兩便)	여즈(女子)	열녀(烈女)
예도(禮度)	요소(尿素)	용담(龍潭)	유리(琉璃)
이발(理髮)	음치(廉恥)		

[불입] 모음과 /ㄴ/ 뒤에 오는 ‘렬, 룰’은 ‘열, 율’로 적는다.

나열(羅列) 비율(比率) 분열(分裂) 진열(陳列)

제13항 합성어

어휘 형태소가 다른 어휘 형태소와 어울릴 때 본디 소리와 다르게 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ㄹ’로 끝나는 어휘 형태소가 다른 어휘 형태소와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나지 아니하는 낱말은 아니 나는 대로 적는다.

ㄹ대 뜯님 ㄹ날[午日] ㄹ쉬 소냥/소남

2. 다른 어휘 형태소 뒤에서 어휘 형태소의 초성 /ㄱ, ㄷ, ㅂ, ㅅ/이 /ㅋ, ㅌ, ㅍ, ㅊ/으로 바뀌는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술깨기	뭍궂	동카름	보리크르
늑뭍	우영팻	조팻	
우녜칩	할망칩	식게칩	

3. 모음으로 끝나는 어휘 형태소가 다른 어휘 형태소와 어울릴 적에 /ㅂ/ 소리가 덧나는 것은 ‘ㅂ’을 앞 글자의 받침 글자로 적는다.

좁쌀 चु쌀

제 14항 파생어

소리만 특이하게 변한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하르방 하르바님 하리비/하르비

제 15항 체언과 조사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여 꼭 바뀔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체언이나 조사의 소리가 바뀌는 것은 바뀌는 대로 적되, 체언과 조사를 구별하여 적는다.

안[內]	:	안네	안네도	안네만
질[路]	:	질레	질레도	질레만
바깳[外]	:	바깳디	바깳디도	바깳디만

다만, 다른 소리가 덧나기도 하고 덧나지 않기도 하는 것은 덧나지 않은 꼴로 적는다.

내[川]에 시(市)에 질레에

[붙임] 서술격 조사 ‘이-’ 앞에서 /ㅈ, ㅊ/ 등으로 나타나는 체언의 종성은 다른 조사 앞에서도 ‘ㅈ, ㅊ’ 등으로 적는다.

낮이라도	낮이	낮을	낮도	낮만
앞이라도	앞이	앞을	앞도	앞만

제16항 어간과 어미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여 꼭 바뀔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어간이나 어미의 소리가 바뀌는 것은 바뀌는 대로 적되,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적는다.

갈다[耕] :	갈았저	가난	갈지도	갈게	갈아도
걷다[步] :	걸었저	걸으난	걸을지도	걸게	걸어도
아프다[痛] :	아팠저	아프난	아플지도	아프게	아파도
올르다[登] :	올랐저	올르난	올를지도	올르게	올라도
조rap다[瞞] :	조라왔저	조라우난	조라울지도	조rap게	조라와도

제17항 준 말

준말은 준 대로 적는다.

1. 형태소 내부

(본딧말)	(준말)
무엇	뫼/뫼/뫼/뫼
그것	그거/거
다섯	닷
기영/그영	경

2. 어간과 어미의 결합

(본딧말)	(준말)
히려	헤
히려	헨
좋은	존
히려저	헛저

3. 어미와 어미의 결합

(본딧말)	(준말)
가키어	가켜

4. 조사와 조사의 결합

(본딧말)	(준말)
보다는	보단
에서는/이서는	에선/에선

5. 단어와 단어의 결합

(본딧말)	(준말)
어제즈냐	엇치냐/엇츠냐
저 아이	자이
그 아이	가이
이 아이	야이

제4장 굳어진 표기

제18항 /ㄷ/ 끝소리

본디부터 /ㄷ/이 아닌 음절의 끝소리는 ‘ㅅ’으로 적는다.

덧(~니)	섯(~들)	숫(~구락)	스몯
웃(~웃)	챗(~새끼)	헛(~일)	

제19항 한자 형태소

한자 형태소는 본음대로 적는다.

1. 표준어의 /ㄴ/이 /ㄹ/로 소리 나는 것

영희(英姬) 의원(醫院) 합의(合意) 희미(稀微)

2. 표준어의 /ㄷ/이 /ㄷ/로 소리 나는 것

계획(計劃) 은혜(恩惠) 폐백(幣帛) 혼례(婚禮)

3. 표준어의 /ㄴ/이 /ㄷ/로 소리 나는 것

괴이(怪異)	외국(外國)	쇠약(衰弱)	죄(罪)
최(崔)	퇴비(堆肥)	회의(會議)	

제20항 합성어

고유어 어휘 형태소가 다른 어휘 형태소와 어울릴 때 본디 소리와 다르게 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적는다.

1. 모음과 평음 사이에서 /ㄷ/ 소리가 덧나는 것은 ‘ㅅ’을 앞 글자의 받침 글자로 적는다.

꺾뻥	꺾주시	덧순	수돗물
웃드르	정짓냥/정젯냥	정짓문/정젯문	

[붙임] 자음 뒤에서 평음이 된소리로 바뀌는 것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몹국 당가름 영도 알드르 톱밥

2. 모음과 /ㅣ/ 사이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은 ‘ㅅ’을 앞 글자의 받침 글자로 적는다.

팻입 농숫일 바깻일/바꺾일/배꺾일 배꺾잇 츠렛일

부 칙

1. 지역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다른 제주어는 모두 인정하여 적는다.

싣그다/싣르다	폴/쿨	폼/쿰	싣짱/싣착
므르다/믈르다[乾/裁]	첫째/첫채/첫차		
굴갱이/굴게/굴각지	재열/재/자/자리/젤/잘		
숫구락/숫가락	-을걸/-으궐	-을디/-을티	
-광/-강/-과/-가/-광/-깡	부터/부떠		

2. 이 표기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한글 맞춤법에 따른다.

메모

A larg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with a dashed border, intended for writing a memo. The box is centered on the page and occupies most of the lower half. At the top center of this box is a dark gray, rounded rectangular button with the Korean word '메모' (Memo) written in white.

메모

메모

A larg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with a dashed border, intended for writing a memo. The box is centered on the page and occupies most of the lower half. At the top center of this box is a dark gray, rounded rectangular button with the Korean word '메모' (Memo) written in white.

메모

메모

A large, empty, rounded rectangular box with a dashed border, intended for writing a memo. The box is centered on the page and occupies most of the lower half. At the top center of this box is a dark gray, rounded rectangular button with the Korean word '메모' (Memo) written in white.